

## 경기도, 신규공무원 39명 환영하는 공직 입문 축하행사 열어

- 경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임용자 39명 축하 행사 개최
- 가족과 친구까지 참여하는 환영 행사는 경기도에서는 처음.
- 감사편지 낭독, 031뿌리미 제작, 소통공감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김동연 지사, “왜 공직을 시작했는지,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자기 답을 찾는 공직자가 되길” 격려



▲21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장 수여식-031 THE FIRST DAY-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규 임용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길게는 2년간의 기다림 끝에 공직자의 길에 들어선 신규공무원 임용 축하 행사가 열렸다. 가족과 친구, 선배 공무원까지 함께한 공무원 임용 축하 행사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39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신규공무원 39명은 2021년 2회 공채에 합격한 7급 공무원 2명과 2022년 2회 공채에 합격한 9급 공무원 37명이다.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행사는 청사 안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규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시청, 임용장 수여식,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편지 낭독, 도지사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석한 신규공무원 39명에게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도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구성된 031뿌리미를 제공해 신규공직자들이 초기에 적

용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신규임용자들을 보니까 반갑고 마음이 든든하다. 경기도청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지사가 직접 임용장을 주고 가족분들까지 초청하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즐거운 자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생활하는 내내 왜 공직을 시작했는지,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자기 답을 찾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속에서 창의와 도전이

나오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씩씩하고 자기 의사표시 분명하게 하고 정해진 틀과 룰을 존중은 해야겠지만 그것을 깨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혜영/기자

##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봄철 호흡기감염병 환자 증가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15주(4.9~4.15.)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보다는 낮지만 3년만에 봄철 증가세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동기간 내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201명으로, 2023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리노바이러스(701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567명),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47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월 개학시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호흡기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를

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촉 전·후 손씻기,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방문객의 업무 및 출입제한 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지아/기자

올바른 기침예절 생활화로 안전한 일상 회복에 함께해주세요!

## 농업의 중심, 귀농귀촌은 경북에서!

### 경북도 및 17개시군, 귀농귀촌 최적지 홍보 및 매력 발산

경북도는 21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1:1 대면 상담과 특산물 홍보 및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관을 비롯해 청년창업농 지원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청년창업관, K-농업과학기술전시 및 치유농업을 홍보하는 K-농업과학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스마트팜을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돼 운영된다.

윤근수/기자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스마트팜 시대에 발맞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최신 농업 트렌드를 제공하고, 지자체별 귀농 및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고소득 작물 소개 등 경북만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명실상부한 귀농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킬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다양한 고소득 작물과 영농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농가가 많고, 단계별 정책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북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매력도시 서울' 알리는 어린이기자단 활동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14시 10분,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6층)에서 '에듀조선'과 '어린이신문 및 어린이기자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들에게 '매력도시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서울시(내친구서울)와 에듀조선(어린이 조선일보)이 어린이기자단의 운영 및 공동취재 등을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내친구서울'은 서울시에서 2001년 3월부터 발간한 어린이신문으로 서울의 역사·문화·정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안내, 토레 이야기, 학습 정보 등을 담아 서울시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및 교사에게 배부하고 있다.

'어린이 조선일보'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신문으로 1937년 1월 창간했다.

최광수/기자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취재단(내친구서울-어린이조선일보 어린이기자단) 운영 ▲상호간 신문지면 및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 기사 게재 ▲시 개관시설 현장체험 및 기자 캠프 등 자원활용 협력 등을 함께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토레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의 다양한 매력과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한다.

한편, 서울시 어린이기자단은 매년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탐방취재, 유명인사 인터뷰 참여와 다양한 기사쓰기 활동을 통해 '내친구서울' 누리집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창간 이래 지금까지 1만 8759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올해는 791명의 어린이들이 서울시 어린이기자단으로 활동 중이다.

최광수/기자



### 대구시의회 '찾아가는 정책발굴단' 두 번째 운영!

- 현장에서 '찾아가는 정책발굴단' 작년 이어 두 번째 운영
- 문복위 소관 출연기관 등 고층·에로사향 청취로 공감 정책 실현
-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및 다양한 정책발굴 지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은 시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4월 21일(금) 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를 시작으로 4월과 5월에 걸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화예술진흥원 등 10여 개소를 방문한다.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이란 용어 그대로 시 의회 정책지원팀이 소관 출연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은 형식적인 소관 기관 방문에서 벗어나 각종 건의 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

토하고, 회의 운영도 정형화된 보고 방식이 아닌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으로 진행해 좀 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출연기관은 관할 상급부서에 적극적인 의견 타진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 생리를 고려해 직접 출연기관을 찾아가 현장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작년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에 참여한 출연기관의 한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찾아주시는 정책발굴단 덕분에 평소의 고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제안들도 나올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문화복지위원회에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3월부터 임기제 신입 정책지원관 8명을 추가로 공모, 선발해 5개 상임위원회(기획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 교육)에 각각 배치했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입 정책지원관들이 다방면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한 기존 일반직 정책지원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대구시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정책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코로나 시대 이후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 것”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회장 박세원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택호 한국경영문화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존 관광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관광 트렌드 변화 등 거시적 환경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연구 계획을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차례 진행된 바 있다"고 말하며, "이전의 연구들을 참고해 연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구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코로나 이전, 중간, 이후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현재 주변국과의 정치적 상황이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코로나가 모든 경기도민의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관광 분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착수보고회에는 이 외에도 경기도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 간 진행되며, 이후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 윤일현 부산시의원, 부산시내 체육관, 급식실, 조리실에 대한 환경개선 촉구

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조리실 내 공기 오염실태에 대한 실상 지적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내 학교 공기정화 시설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 및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일현 의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의 질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측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산시 교육청은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공기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부산시 내 학교시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공기 오염도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나, 실제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라미 공시항목에 공개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전체 학교 중 체육관은 3.2%, 급식실은 5.9%만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체육관의 경우 3년 동안 필터 교체는 고작 6회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윤일현 의원은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실의활동 자체를 시키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한 체육관에서 활동을 장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필터교체를 하지 않는 공기정화시설은 의미가 없다. 부산시교육청은 공기정화시설 설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설치한 공기정화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제로 체육관 공기정화시설 예산을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243억의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부산의 투입예산은 4억에 불과했다.

이어서, 작년 부산시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폐암 발병



률이 0.34%로 확인됐는데, 이는 일

윤일현 의원은 "학교 및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책임성 없는 행정으로 학생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건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산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내 학교 공기정화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종진/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역북초등학교 참여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21일 역북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2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김상수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최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OX퀴즈를 풀며 지방자치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수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의회를 직접 방문



해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내용을 경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조혜영/기자

### 고광민 서울시의원, 2023년 첫 추경에서 서초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 예산 16억원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초구 제3선거구 소관 8개교(신중초, 이수초, 동덕여중, 이수중, 동덕여고, 서울고, 서울전자고, 서초고)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초구 제3선거구 소관 12개교(방현초, 이수초, 서일초, 신중초, 이수중, 서초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서울전자고, 서초고)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본예산, 추경, 예비비 등) 총 201억 2,89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 고광민 의원은 서초구 제3선거구 소관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예산은 총 16억원으로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신중초 운동장 및 강당 통신타설개선 등 1.33억원 ▲이수초 외부교육 환경개선 5천만원 ▲동덕여중 통행로 시설개선 등 1.29억원 ▲이수중 체육관 보일러 시설개선 등 6천만원 ▲동덕여고 체육관대크시설개선 등 1.8억원 ▲서울고 급식실 배수 및 안전시설개선 등 7.24억원 ▲서울전자고 누수위험시설개선 등 2.4억원 ▲서초고 학생휴게시설개선 등 8천 4백만원이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서초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협조를 보내준 덕분에 지난해 총 201억원규모의 교육환경개선 예산에서 총 16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에 성공하여 서초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내년 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서초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112)      문화부:내선(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113)      부동산부:내선(117)

     경제부:내선(114)      오피니언부:내선(118)

     스포츠부:내선(115)      지방부:내선(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찾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

## 「문경시 2023 찾사발 축제」 개최하다

4월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개최돼

주제, “찾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 슬로건, “찾사발을 원하다 문경에서 꼭하다”

축제 명칭, 축제 기간, 축제 주제, 홍보활동, 축제 장소 확대 등 **다변화** 꾀해

‘찾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을 주제로 한, 2023문경찾사발축제는 ‘찾사발을 원하다! 문경에서 꼭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9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리게 된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2023 문경찾사발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4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돼, 생활도자기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중·일 찾사발 국제교류전, 전국찾사발공모대전 등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기장의 하루, 다례시연, 전국발물 레경진대회, 전국다례무다대회 등 소통형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개인 찾잔을 활용한 다례체험과 휴대용 소독기 배부 등 관람객의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 과제로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펼쳐지며, 이와 관람객의 안전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관광객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족, 연인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3문경찾사발축제는 시가 주최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 문경찾사발축제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등이 후원하는 전통도자기의 맛을 계승하는 도시 도자기 문화의 생활화를 실현해 문경도자기의 산업화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축제로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과 온라인에서 펼쳐져 문경전통 발물레, 망댕이 가마를 바탕으로 한 문경 전통도자기의 정통성을 되새기고, 고통과 애환속에 명맥을 이어온 선조 도공들의 삶을 즐겨온 마음으로 이어가는 축제의 장이다.

찾사발을 주제로 축제가 열리는 이곳 문경은 ‘문경새재’라는 서울로 가는 조선시대에 영남지방 주요 통행로로 과거길로 유명하다. 한양으로 가려면 조령·죽령·한계령·추풍령 등 고갯길이 있는데, 야설에 의하면, 조령(조기낙마), 죽령(죽어도 안됨), 한계령(한계가 있음), 추풍령(추풍낙엽)처럼 낙마한다하여 과거시험보러 가는 영남지역 선비는 물론, 호남지방선비들조차도 이 문경새재를 넘으면 행운이 온다하여 넘은 고개가 바로 문경새재일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경은 도자기 제조에 필요한 ▲풍부한 사토, ▲많은 땀감 ▲발달한 수송로를 갖추고 있어 도자기 산업 발달의 최적지다. 이따다보니 이곳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장작 가마를 비롯한 약 200개의 도요지가 있고 전국 도예명장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 찾사발 제작기술로 제작한다. 찾사발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문경 찾사발 제작 기술은 예로부터 전통 방식으로 사토를 채취→팽에서 흙을 거름→
- 사토물을 채로 거름→질을 밟음→고박을 물레에 얹음→물레를 돌리며 빚음→굽을 깎음→건조시켜 초벌구이→그림을 그려 넣음→유약을 입힘→재벌구이→가마속의 사기그릇을 꺼냄

이처럼 이번 2023문경찾사발축제는 찾사발 제조 과정부터 찾사발 활용 방법까지 모두 관람할 수 있고 사토와 망댕이 가마 등도 직접 체험하고, 찾사발을 활용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람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찾사발 전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별행사는 ‘전국가루차 투다대회’, ‘문경도자기 명품 경매행사’, ‘문경 전국 발물레경진대회’, ‘등금장수 한양가다’ 공연 등이 열리며,

▲체험행사는 찾사발 빚기, 찾사발 그림그리기, ‘찾~퀴즈온더블록’, ‘1300 황금 찾사발을 찾아라’, ‘찾사발 페달보트’, ‘차담이 네컷’ 및 포토존 프로그램, ‘스탠딩 찾사발 행사’, ‘다례체험’, ‘망각의 찾집’이 펼쳐진다.

▲알찬행사는 14개 읍·면·동에 「시민의 날」을 운영, 황금 찾사발 경품추첨 행사와 차담이 페이퍼 포토존, 문경특산물 판매행사, 문경문화 예술인 자유공연과 글로벌 스타 월담스토리 가 각각 펼쳐지며,

▲부대행사는 안동MBC 정오의 희망곡, 찾아가는 영화관, 문경도자기와 향토음식 한상차림전, 한복 패션쇼, 제1회 문경 전국사진 촬영대회, 신스틸러 페스티벌, 문경국제도자 심포지엄, 문경사랑 연예인 초청자선 골프대회, 문경친환경 캠핑프로그램 운영, NH농협과 함께하는 견뎌박사, NH농협과 함께하는 이은결 스페셜 등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2023문경찾사발축제에 눈여겨 보는 점은 ▲축제의 명칭 ▲축제 일정 ▲축제의 주제 ▲차별화된 홍보활동 ▲그리고 축제의 최대 포인트인 축제 장소 등의 변화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축제의 명칭은 제1회(1999년)~제5회(2003년)→‘문경전통찾사발축제’, 제6회(2006년)→‘문경새재대축제’, 제7회(2005년)~제9회(2007년)→‘문경한국전통찾사발축제’, 제10회(2010년)~제20회(2018년)→‘문경전통찾사발축제’로 불려졌고, 지난 21회대회(2019년)부터 보다 쉽게 기억하기 좋은 ‘문경찾사발축제’로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축제기간은 1~5회(2~5일간), 6회(9일간), 지난 2020년 22회(15일간) 이후 23회(10일간), 24회(9일간) 축제 일정이 오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9일간 일정 행사로 열리고 있다.

▲축제의 주제는 1·2회(전통과 현대의 만남), 제3회(인간, 흙, 불의 향연), 4·5회(흙과 불의 향연), 6회(전통과 자연의 좋은 만남), 7회(전통도자기와 웰빙의 만남), 8회(흔을 굽는 장인과 땅의 만남), 9회(다시피는 천년의 불꽃), 10회(여기여차 디어차), 11회(關香천년 茶香만리), 12회(천년의 숨결 차의 향연), 13회(찾사발에 담긴 천년사랑), 14회(흙, 불, 바람의 어울림)15회(찾사발에 담긴 전통, 그 길은 울림!!), 16회(발물레 차는 사기장 이야기), 17회(망댕이 가마 불지피는 사기장의 하루), 18회(사기장이 들려주는 찾사발이야기), 19·20회(문경 찾사발의 꿈! 세계를 담다.), 21회(쉬고, 담고, 거닐다)를 주제로 축제가 진행돼 왔다.

▲차별화된 홍보 활동으로 문경시는 이번 문경찾사발축제를 위해 각종 방송언론 매체를 통한 지면광고, 동영상(스팟)광고 생방송인터뷰 등은 물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스포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국제 박람회 참석 등 각종 박람회 참석, 찾아가는 문경시 홍보 행사를 위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청계광장 현장홍

보, SNS와 유튜브를 통한 행사장현장체험 홍보, 리플릿, 현수막, 포스터를 통한 지역홍보 등을 진행해 이번 축제가 전국민적인 축제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해 오고 있다.

▲‘윙픽페스티벌’이다. 이는 20,000 원인데, 사전구매시 5천원을 할인해 15,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구매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철로자전거 할인권(平日 40%, 주말 20%), 황금다완 추천권, 말차다례 체험할인권(3,000원→2,000원), 찾사발 빚기 체험권(5,000원), 찻잔교환권(30,000원 상당)이며, 그 외 찾사발 그림그리기(15,000원), 망각의 찾집(10,000원), 1300 황금찾사발을 찾아라(2,000원), 차담이 네컷(2,000원)은 체험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곳 문경찾사발축제를 찾아 오시는 관광객을 대만족 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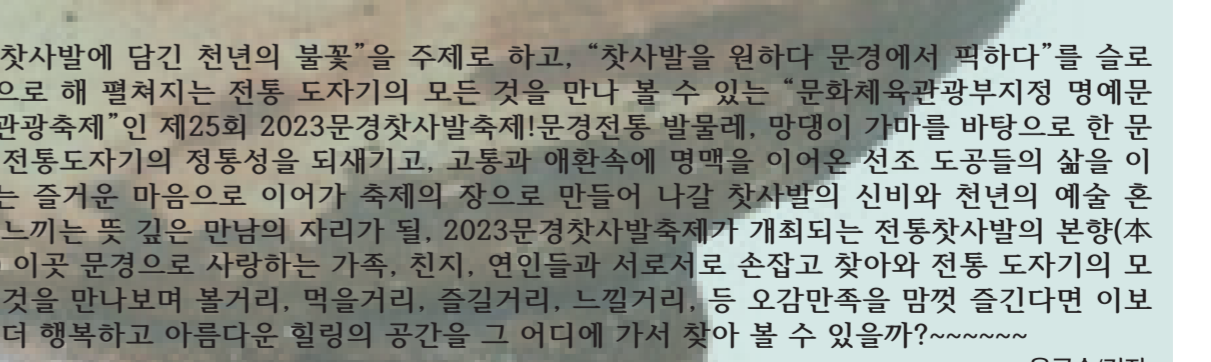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의 최대 포인트인 축제장소의 변경은 지난 1~21 회대회때까지는 새재박물관과 도자기전시관, 문경새재오픈세트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로만 진행됐으나 지난 22회 대회때부터 on-off라인 행사로 개최돼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 개최되는 축제는 축제 장소를 확대 운영해 보다 큰 성공적인 축제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철저한 행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어 이번 축제가 벌써부터 대박성공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변화·발전해 가고 있는 문경찾사발축제는 2001년~2003년 경상북도 우수축제, 2005년~2007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2009년~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2012년~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2017년~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명성을 떨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축제로서 꿈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K오씨(남, 66세), 문경읍은 “우리시를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찾사발 축제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축제기간에만 집중된 관광객 유입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어렵지 않기에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았을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신숙 축제추진위원장은 “문경 찾사발이 생활도자기로의 전환점을 맞게 될 이번 축제에서는 축제 상품이 말도 안되게 짠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생활도자기로 훌륭하게 쓰이는 모습도 볼 수 있으니 많이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2023 문경찾사발축제는 코로나 19의 역경을 버티고 일상을 회복중인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풍성한 내용으로 보다 안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문경찾사발이 생활도자기로써 방문객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관광객의 안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문경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찾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을 주제로 하고, “찾사발을 원하다 문경에서 꼭하다”를 슬로건으로 해 펼쳐지는 전통 도자기의 모든 것을 만나 볼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제25회 2023문경찾사발축제! 문경전통 발물레, 망댕이 가마를 바탕으로 한 문경 전통도자기의 정통성을 되새기고, 고통과 애환속에 명맥을 이어온 선조 도공들의 삶을 이제 즐겨온 마음으로 이어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찾사발의 신비와 천년의 예술혼을 느끼는 뜻 깊은 만남의 자리가 될, 2023문경찾사발축제가 개최되는 전통찾사발의 본향(本郷) 이곳 문경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연인들과 서로서 손잡고 찾아와 전통 도자기의 모든 것을 만나보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 오감만족을 맛껏 즐긴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힐링의 공간을 그 어디에 가서 찾아 볼 수 있을까?~~~~~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모범근로자 20명에게 표창장

### 성신양회 원상희씨, 신화디앤피 정지혁씨 등 생산성 향상과 노동안전 기여 공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산업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쓴 모범 근로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시는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재직 한 근로자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협력을 위해 노력한 근로자, 다양한 업종에서 장기근속한 생산직 근로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한국노총 용인시지부와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각 읍·면 기업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처인구 마평동 소재 레미콘업체 성신양회에서 23년간 운송업무를 맡아 온 원상희씨는 사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처인구 모현읍 소재 자동차 장비

제조업체 신화디앤피에서 4년간 일해 온 정지혁씨는 새로운 패키지를 제작하는 자동화 장비 도입을 추진

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이 시장은 “모범 근로자 여러분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주시길 감사하다”며 “직장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상병수당 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시에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성·이동을 215만평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해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보정·마북동 플랫폼시티 등이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단을 순조롭게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시흥시, 청년스태이션에 가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가득

시흥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스태이션 5월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를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년스태이션은 시흥청년 네트워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소통공간으로, 지난 3월부터는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등 주말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시간도 18시까지 연장했다. 또한, 운영시간 확대에 맞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주차장도 24시간 전면 개방하고 있다.

주말 확대 운영에 따라 그간 청년스태이션은 소셜다이닝 ‘공유식탁’, ‘봄맞이 플랜테리어’, ‘청년취업스쿨’, ‘독서커뮤니티 ‘북그립’, 영상제작 ‘나도 이제 유튜버’ 등 17개 프로그램(37회차)을 운영했으며, 총 266

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평일 퇴근 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힐링 되는 시간이다.”, “다양한 청년활동을 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크게 만족했다.

오는 5월에는 ▲퍼스널패션 ▲전통주 만들기 ▲보컬 트레이닝 ▲소셜다이닝 ▲제테크 수다방 ▲오일파스텔 ▲독서모임 ▲어버이날 앙금플라워 ▲굿즈 만들기 ▲청년매니저와 함께하는 네트워크 등 총 10개 프로그램(19회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스태이션은 취미·여가·건강·생활·취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폭넓은 청년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 김경일 시장,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우수정책 발표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한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과 이례적 한파와 맞물린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생계 부담이 큰 시민을 위한 파주시의 민생 정책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추진 배경과 지급 과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정책의 속도와 편의성 및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역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정책 발표부터 지급 실시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파주시는

SNS·현수막·승강기 TV 광고 등 시민의 생활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다. 또한 신청 첫 주 차에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했다. 5주간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지급률 92.5%를 달성하며 총 403억 원을 지급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은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는 정책이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과 민생정책 성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개최로 진행됐다.

한영기기자

# 안성시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성시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포장·배달용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4월 20일 체결한다.

안성시를 비롯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는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개발·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 및 민간 배달플랫폼 운영사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손잡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배달어플을 통하여 다회용기로 주문시 각종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되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리스 등

의 재질로 세척업체를 통하여 세척 소독되어 음식점에 제공되며, 사용한 다회용기는 함께 동봉되는 반납 가방에 넣어 QR코드를 통한 반납 신청을 하면 다회용기 회수 및 세척업체인 잇그린(리턴잇)을 통하여 회수, 세척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 배달용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5톤이상 감량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4톤이상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며 추후 배달용기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등 대량으로 일회용품 사용하는 곳과도 연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할 방침이라 전했다.

양시현기자



# 오산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오산시는 20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관재 오산시장, 성길용 오산시의회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과 유공자 24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매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의 날(4월 20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벗고 맞는 첫 기념일인 만큼 장애인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해 즐기는 축제로 기획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 동등하게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아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의 기념사와 표창 수여에 이어 2부 전문 MC의 진행으로 난타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총 9개 팀이 마음껏 끼를 펼쳤다.

이관재 오산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3년만에 장애인의 날이 개최된 만큼 많은 장애인과 시민들이 함께해 축제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뜻깊은 행사가 됐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즐거운 오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 인천 서구, 60만 인구 돌파...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 24년째는 1위 도시



인천 서구가 인구 6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자치구 중 2위 규모로 지난 2015년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지 8년 만이다.

서구는 21일 현재 내국인 인구 600,015명으로 외국인 12,813명을 포함하면 총 612,828명이라고 집계했다. 서구 인구는 같은 인천 내 다른 자치구를 훌쩍 넘어섰고 전국 자치구 중 3월 기준 65만8천 명의 서울 송파구 다음이다.

서구는 지난 1988년 1월 복구에서 분구해 ‘서구’가 됐다. 당시에는 법정동 12개에 15만4천 명이 거주했다. 인천사람들이라면 깃발을 건너야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개건너’로 익숙한 지역이 상전벽해를 거듭해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큰 면적의 도시로 성장했다. 27년 뒤인 지난 2015년에는 인구 50만을 넘어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기도 했다.

서구는 대부분 도시가 인구 감소를 겪고 저출산 등으로 인구 위기 상황을 거듭하는 도시라며 60만 인구 돌파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오는 5월 인구 60만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음악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축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월부터 주민이 소장한 추억 영상을 받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구 홍보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서구가 생긴 이후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일상이 모여 60만 대도시 서구에 이르게 됐다”며 “코로나 등으로 위축됐던 도시 분위기를 바꿔 서구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축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검단, 루원시티 입주에 계속되고 검암역세권, 불로·대곡·오류·왕길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24년 말에는 송파구 인구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60만 인구를 넘는 도시가 탄생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보기 힘든 현상이지만 앞으로는 2015년에는 인구 50만을 넘어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기도 했다. 서구는 대부분 도시가 인구 감소를 겪고 저출산 등으로 인구 위기 상황을 거듭하는 도시라며 60만 인구 돌파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오는 5월 인구 60만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음악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축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김종남기자

# 고양특례시, 국내·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자 57개 선정

### 판로개척과 마케팅 기회를 통해 매출증가 기대

고양특례시는 지난 20일, 국내·외 전시회 지원 사업자 57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앞으로 1년간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전시장 부스비, 구축비, 홍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국내전시는 기업 당 연간 1회 최대 200만원 ▲해외전시는 연간 1회 최대 450만원 까지다.

특히 이번 국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약 130%가 증액된 1억 원을 지원하여 22개 업체에서 50개로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에이 오우디자인(주)’ 안세희 대표는 “전시회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고양시의 전시회 지원 사업 덕분에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기뻐했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창업자들의 전시회 참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전시회를 통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판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문화재단·용인문화원·청소년미래재단과 인재양성 협약

— “지덕체(知德體) 고루 갖춘 인재 양성하자”...문화·역사 소양강화, 심리상담도



용인시축구센터(이사장 이상일)가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시 산하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축구센터는 지난 13일 용인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4일에는 용인문화원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과 협약을 맺었다. 축구센터와 각 기관들은 ▲선수단 경기력 향상 ▲심리치유와 문화교육 ▲청소년 축구 인재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시행에 힘을 모은다. 용인문화재단은 축구센터 교육생

에게 ‘찾아가는 더 클래식 하우스’ 공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마음키움’ 집단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용인문화원은 교육생 대상 ‘용인향토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인시축구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축구센터 교육생의 문화 소양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생이 용인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최대호 시장,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안양 청년정책’ 소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21일 경기도청서 정책대회 열어



▲최대호 안양시장이 2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대회에서 안양의 청년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청년! 자립·성공·행복’을 주제로 청년특별도시 안양에 대해 소개했다. 2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대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안양을 비롯한 서울 노원구·은평구, 수원시, 안성시, 파주시 등 6개 지자체장들이 참여해 각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발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간 정책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책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최 시장은 이날 ▲청년자립 ▲청년성공 ▲청년행복 등 세 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청년특별도시 안양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소개했다. 청년 자립과 관련해 시는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F.I.N.D.’를 운영하고 있다. Finance(금융기초), Interview(취업역량 강화), Networking(청년활동 공유), Data(4차산업혁명 데이터 교육) 등 분야에서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성공 사업으로는 ‘안양정착 취업학교’로 올해 60명을 선발해 체계적인 구직상담, 교육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초기상담 통한 경력목표 수립, 역량 강화, 서류작성 점검, 모의면접 등 단계별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안양 정착을 돕고 있다. 또 민선 7기 청년창업펀드 1호로 921억원 조성해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 데 이어, 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주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행복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도 추진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 약 3,186세대의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중앙기 로드맵을 수립한 가운데, 올해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등을 통해 총 105세대의 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67개 사업에 4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우영/기자

## “경기도 자치분권을 도민에게 소개할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도, 2023년 경기도 자치분권 청년 서포터즈 모집

— 지역축제·교내행사·누리소통망 등에서 자치분권 홍보, 활동우수자 도지사상 수여

경기도가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자치분권 청년 서포터즈’ 50여 명을 모집한다. 자치분권 청년 서포터즈는 자치분권 제도·정책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벌인다. 또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행사 협조 및 지원활동, 자치분권 토론회·워크숍 참석, 도내 대학교 축제 시 자치분권 퀴즈 이벤트 및 주민 자치위원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 우수자에게 도지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글쓰기 교육과 소통·협력 촉진(퍼실리테이션) 교육 등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으로, 서포터즈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5월 말부터 10월 29일까지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휴학생으로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포스터에 게시된 쿼알(QR) 코드에 접속하거나 전자우편(maypu@hopenest.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주권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에 경기도 자치분권 청년 서포터즈가 청년 자치의 주역이 되길 기대하며, 자치분권과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 해법은... 국회토론회에서 ‘국토부 일방적 추진 안 돼’ 한목소리

21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 현안 국회토론회’ 개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주제로 21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은 안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광명시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정부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 박철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4명이 나섰다.

박승원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한 시민이 76.2%에 달할 정도로 광명시민의 민의가 확실해졌다”며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발제를 통해 공공갈등의 해법을 ‘일방과 불통’이 아닌 ‘참여와 소통’으로 꼽았다.

소순창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과거 권위모형에서 독립



적 관계인 ‘협력모형’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문제를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주민을 협력의 주체로 인식하여 지역문제를 결정할 때 신뢰와 협의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센터장은 “중앙정부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설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의 책임이 광명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을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만 갈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는 광명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는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문제해결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주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충분한 대화와 소통 과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민원 해결을 위해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직주 근접 명품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광명시 한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광명시민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이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강조하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주변의 다른 사업을 고려해 포괄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기초지방정부 핵심 역할은 복지사각지대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연결고리 되는 것”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수도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 콘(CON)’ 발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초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은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 간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21일 경기도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연 ‘수도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 콘(CON)’ 정책을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세어하우스 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며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고 함께하는 지역주민들 덕분에 ‘따뜻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서울·경기 6개 기초지자체장이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이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 콘(CON)’은 수원시의 청년주거지원 정책이다.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



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한다. 한 집에 같은 성별 청년 3명이 공동 거주한다. 지난해 9월 30일 세어하우스 콘 1호에 남성 청년 2명이 처음으로 입주했고, 현재 3개소에 청년 8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수원시는 세어하우스 콘을 10호 이상 개설할 계획이다. 입주 청년들에게는 ‘자립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사회 청년 관련 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입주 청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해 심리·사회적 안정을 지원하고, 만기 퇴소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세어하우스 콘에 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또 앞으로 살게 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온정을 양분 삼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행복의 꽃을 피우길 바란다”며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관심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창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 예천군, 올해 첫 모내기 시작! 풍년농사 기원

- 해당쌀 모내기, 추석 전 햅쌀로 출하해 농가소득에 도움 줘  
- 김학동 군수, "쌀값이 안정돼 농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예천군은 지난 21일, 개포면 경진리에서 첫 모내기 작업을 해 본격적인 영농 시작을 알렸다. 이날 모내기는 정교수(69세)씨 농가의 논에서 모내기가 진행됐으며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쌀 전업농, 농업 관계자 등도 참석해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이번엔 모내기한 해당쌀은 추석 전 햅쌀로 출하해 일반 중만생종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를 피해 쌀을 수확해 노동력을 분

산 하는 효과도 있다. 김학동 군수는 "올해 자연재해나 병해충 피해 없이 모든 농가에 풍년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며 "쌀값이 안정돼 농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전액 지원 및 처리 약제, 토양개량제, 대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등 병해충 방제와 친환경 재배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환경산림분야 미래먹거리 신규시책 발굴 전력

- 31개 신규 사업 발굴, 예산 반영해 살아있는 시책이 되도록 할 것...  
-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공무원·민간 소통, 환경산림 시책 적극 발굴"해

경북도는 지난 21일, 청송 임업인 종합연수원에서 도 환경산림분야 8개 부서 직원과 민간 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한 신규시책 발굴 등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환경·산림이 전방위 산업이 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폐기물 자원순환과 물산업 육성, 산불 대응 첨단화, 고소득 산림경영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대규모 국비 공모, 탄소중립 생활화 아이디어, 도민 편의 증진 자체사업 등 신규 시책 발표와 질의응답·토론, 전문가 특강과 환경보호 플로깅 등으로 이어졌다. 환경산림분야 공무원들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팀별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이날 총 31개의 신규시책을 발굴해 선보였다. 특히, 도민 대표로 참석한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조언과 비판으로 발굴한

사업의 질과 추진력을 높였다. 이어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의 「채경복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이상일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이 「탄소중립 시대, 환경의 미래와 정

책방향」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한편 현장에서 나온 주요 신규시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브랜드화,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 공공기관 텀블러 활용 강화(세척기 공급 등), 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환경 컨설팅, 고성능 임업기계지원센터 건립, K-산촌 오감마을 조성 등 창의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다. 발굴된 사업들은 내년 국·도비 예산에 반영해 살아있는 시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오늘 발굴된 많은 사업들이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 만들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소통해 알찬 환경산림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개원기념일 맞아 환경정화활동 광안리 인근서 쓰담걷기 봉사 활동 전개

개원 16주년 맞이 임직원 환경정화활동 전개  
탄소중립 실천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일, 기관 설립 16주년을 기념하며 광안리 인근을 걸으며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부산디자인진흥원 70여명의 임직원들은 밀락더마켓에서부터 남천 해변공원까지 버려진 플라스틱컵 등의 쓰레기를 주우며 쓰담걷기 활동을 했다. 이는 ESG 경영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임직원들이 함께 한 행사이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은 "이번 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 환경부터 돌아보고 가꾸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직원 간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많은 활동을 통해 늘 가까이 있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 제1회 영양군 반려동물체험·프로그램 행사 개최

청정 영양에서 반려동물과 신나게 놀아요(가칭)

영양군은 오는 5월 13일(토) 입암면 선바위공원 일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엔 개최되는 반려동물 체험 프로그램 행사는 반려 인구 1,400만 시대에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군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사이다. 주요 행사로는 팻캣 퀴즈, 반려동물운동회 등 체험형 경품 및 이벤트 행사와 수제 간식 만들기, 셀프 미용, 행동 교정 및 무료 건강상담 등 참여형 행사가 진행되며 4개 존(zone) 12

개 부스에서 운영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요즘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반려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영양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반려인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양군은 지난해 유기·유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유기 동물보호소를 개소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며 2024년에는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위한 핵심 거점 기반 마련된다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센터 내 'SW산학캠퍼스' 코드-알파' 개소  
-지역 SW집적단지 내 산·학·관 연계 SW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 SW인재 양성의 교두보가 될 'SW산학캠퍼스' 코드-알파'가 4월 21일(금),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과 주호영·홍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과 지역 SW기업 관계자 및 대학생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및 지역 기업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산업 SW인재양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SW산학캠퍼스' 코드-알파'는 지역

SW기업이 밀집한 수성알파시티에 조성돼 SW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학·관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고급 SW인재 890명 양성 ▲산학협력 SW 프로젝트 과제 183개 지원 ▲SW 인재 지역 정착률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SW산업진흥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참여 컨소시엄(경북대·계명대·영남이공대)은 이번엔 개소한 'SW산학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해 SW집적단지 내 재직자 학위과정 및 지역대학 학부생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지난해 참여기업(☞우정정보기술, ☞엔가든)과 올해 선정기업(☞YH에이타베이스, ☞범일정보, ☞신라시스템, ☞디지엔터테인먼트)이 지역 대학 학부생과 공동으로 수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자리도 가졌다. 또한, 참여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특강을 통해 Chat GPT, AI활용사례, AI기술 동향 등 초거대 AI시대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기도 했다. 윤근수/기자

비전	지역의 고급 SW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화를 위한 "지역 SW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생태계 조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급 SW인재 890명 이상 양성 ('23년: 200명 이상)</li> <li>지역 SW인재 인재의 지역 정착률 30% 이상 (지역 기업 취업률)</li> <li>산학협력 SW 프로젝트 183개 과제 이상 ('23년: 40개 이상)</li> </ul>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 맞춤형 교육 운영</li> <li>산학협력 중심 SW교육 인프라 운영</li> <li>신/학/관 상호 협력 체계 구축</li> </ul>
추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li> <li>현장 맞춤형 학생 PBL과정 운영</li> <li>산학 공동 SW 교육 인프라 조성</li> <li>SW인재 양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li> </ol>

## 대구소방·대구지방보훈청 업무 협약 보훈가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20일(목) 오후, 업무 협약을 맺고 보훈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가족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주요 내용은 ▲보훈가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물품 지원 ▲공상·순직 소방공무원 등 보훈가족 복지 지원 ▲정보공유와 협

력 네트워크 구축, 상호 협력 등이다. 대구소방은 우선 주택에 거주하는 보훈가족 200여 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지원 대상가구가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화려한 막을 올리다

- 4일간, 30개 종목, 1만 2천여 선수입원, 지역 명예 걸고 선의 경쟁
- 손병복 군수, "안전·희망·화합대회로 지방시대를 대비한 도민 힘의 구심점"되길
- 이철우 도지사, "지방시대를 위해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축제의 장"되길

지난 21일, 오후 5시, "뛰어라 희망 울진. 날아라 경북세상"이란 대회구호와 "하나되는 화합울진, 미래향한 경북제전"이라는 대회표어 아래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식을 갖고 24일까지 4일간 울진종합운동장 외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최식은 이철우 도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점두 경북도 체육회장, 임승필 울진군청장, 등 주요 인사와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국악공연과 가수 최누리, 풍금의 축하공연에 이어 관람객 안전영상시청 내빈입장, 카운트다운, 선수단 입장, 국민의례, 경북 교육감 개회선언, 손병복 울진군수 환영사, 대회기 게양,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의 개회사,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회사, 헌장낭독, 축사, 선수단 대표선서, 성화점화순으로 진행 됐다.

이번 도민체전은 경상북도-경상북도 체육회가 주최하고, 울진군-울진군체육회가 주관하며 경상북도교육청-울진교육지원청이 후원해, 시범 4개 종목(승마, 합기도, 야구(시부), 축구(시군부))를 포함 3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

지며, 경기장은 타시군 6개 경기장을 포함 37개 경기장(울진군 24종목, 31개 경기장)에서 22개 시군의 1만 2,000여명의 선수·임원단이 참여하여 치열한 승부를 펼치게 되며, 24일 17시30분에 울진테니스장에서 폐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내 대표적 청정도시이자 문화관광 지역인 울진군에서 제61회 경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울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체전을 통해 울진군과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도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회사에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체전이 안전대회, 희망대회, 화합대회로서 앞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갈 도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대화합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후 축하행사로 정미애, 박군, 홍자, 스타이씨, 정동원 등 인기가수들



의 화려한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울진군은 선수단과 임원,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대회기간 중 미술·사진전 등 문화공연 행사는 물론 22개 시·군 농특산물 홍보 부스와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체육대회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경북도민체전은 코로나 19와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로 상처 입은

# 청송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온힘'

윤경희 청송군수, "누구나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청송군 미래를 위해 최선을"



청송군이 점차 심화되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온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수를 비롯, 실과원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2026년까지 청송군 인구정책의 토대와 연도별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들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지역 여건분석과 주민 의견청취(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과제 등을 바탕으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필요한 구체

적인 사업들을 제안 검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청년층의 이탈방지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청송 무료버스의 활성화와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유동인구 증가방안, 농업기술력 고도화/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귀농인 유인효과 증대방안,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민족도 제고방안 등 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와 사업들에 대해 열린 논의가 이뤄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 패러다임에 맞춰 정주인구의 확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근·관광·휴양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생활 인구의 확대를 위한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누구나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청송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 복지사각지대 농민 취약계층에게 "이머전시 푸드팩" 지원

-오도창 공공위원장, "푸드뱅크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결식계층 제로화"에 기여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북광역푸드뱅크로부터 긴급구호식품 '이머전시 푸드팩' 100여 개를 지원받아 취약계층 5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심에서 시행하는 '이머전시 푸드팩사업'의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식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이며,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긴급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담긴 2개월 분량의 식품으로 구성됐으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전달된다.

한편, '영양군의 푸드뱅크사업'은 타지역의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등을 기부받아 지역의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

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3,600여 명에게 KF마스크, 녹용홍삼, 콜라겐스틱, 마틸다칩구류 등 40여 종의 푸드뱅크 물품 16만 개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지원했다.

오도창 공공위원장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의한 축인 음식을 나누는 푸드뱅크사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눔이자,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특히 기부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매우 부족한 영양지역에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며,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식계층 제로사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교육지원청, 2023년 공직자 안보 교육 실시

박재식 교육장,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함양 및 국가관 정립 계기 되길"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금), 영덕교육지원청 1층 초연관에서 청직원 및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보 교육 강사로 초청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태 교수는 중미 전략 경쟁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최근 변화하는 국제 권력구도에서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박재식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행정의 중추인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장문화기자

# 2023년 안동형 일자리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교육형·취업연계형 인턴십 참여 청년 46명 모집

안동시와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은 4월 26일까지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인턴을 모집한다.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 인력풀(pool) 구축과 참여 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취업 연계형 인턴십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4일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22개 참여기업의 모집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여 기업에서 근무할 인턴 모집에 나섰다. 참여대상은 만 18세~39세 이하(2023. 1. 1. 기준) 미취업 청년으로 안동시에 주소와 함께 있는 미취업자 또는 안동시 소재 교육기관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이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졸업(예정)자는 채용 선발 시 1개월 이내 주소와 안동시로 이전해야 한다. 지원서류에는 '교

육형 인턴십'과 '취업연계형 인턴십'이 있으며 총 46명의 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다. 인턴으로 선발된 후 지원기업과 최종 면접 심사를 거쳐 매칭된 인턴은 오는 5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4월 26일까지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누리집(andongjo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기업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대학교 일자리사업단, 안동시 및 안동대학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과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동시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지역전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동형 일자리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인턴모집공고**

**지원 대상**  
- 안동시에 주소록 두고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안동시 소재 교육기관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접수 방법**  
홈페이지(https://andongjob.kr)/접수  
오른쪽 하단의 QR코드 스캔 후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홈페이지 방문

**모집 기간 및 인원**  
- 2023년 4월 19일 ~ 26일 17:00  
- 46명 내외

**지원 혜택**  
- 교육형 인턴(내년 공공기관 최대 9개월)  
- 취업연계형 인턴(내년 기업 최대 6개월)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참여기업지원센터  
054-854-7063

공고 바로가기

# 경북교육청, 2023년 1학기 가족캠핑 '소곤소곤 추억 만들기'

- 4월 22일 ~ 7월 9일 경북교육청 오토캠핑장에서 진행 - 임종식 교육감, "가족이 화목하고 소중한 시간을 통해 삶의 힘 키우시길"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소곤소곤 추억만들기' 가족캠핑을 운영한다. 지난해 경북교육청은 영덕, 포항, 김천 오토캠핑장에서 133가정을 대상으로 9차례 가족캠핑을 실시했다. 캠핑 참가자들은 캠핑 용품의 제공으로 편안한 캠핑은 물론 사춘기 자녀와 소통의 기회를 통해 가족애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94%의 만족도를 보였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는 더 많은 가정에게 가족캠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9회(1학기 7회, 2학기 11회)의 캠핑을 운영한다. 1학기 가족캠핑은 2,908가정이 응모해 공개추첨을 통해 135가정이 선정되었으며, 2학기 가족캠핑은 오는 7월부터 220가정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캠핑은 영덕오토캠핑장에서 1기(4월 22일~23일), 3기(5월 20일~21일), 7기(7월 8일~9일)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에서 2기(5월 6일~7일), 5기(6월 17일~18일) 김천오토캠핑장에서 4기(6월 10일~11



일), 6기(7월 1일~2일)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운영진의 안내에 따라 ▲가족이 함께 텐트 치기 ▲전통 문패 만들기 ▲소통 골든벨 ▲이색 요리대회 ▲도미노 쌓기 ▲디지털 캠프파이어 ▲기상미션 음악 즐기기 ▲미니운동회 ▲텐트 철거 등으로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캠핑을 통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협력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에 이어 해도 안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들이 화목하고 소중한 시간을 통해 삶의 힘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울진에서 화려하게 막 올라!

울진종합운동장 등에서 21일부터 4일간, 도민통합 축제의 장



울진군은 21일 오후 5시 근남면 울진종합운동장에서 '하나되는 화합울진, 미래향한 경북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식을 열고, 오는 24일까지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 23개 시군, 1만 2천여 명의 선수, 임원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시부 30개 종목, 군부 16개 종목에 참가하여 주경기장인 울진종합운동장의 36개 보조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군부 최초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울진군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상처를 입은 군민들에게 마음의 치유와 함께 청정 울진의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개회를 통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울진군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시대를 선도할 도민들의 화합과 역량을 이끌어내는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점두 경북도 체육회장, 임승필 울진군의회장, 주성열 울진군 체육회장 등 대구·경북지역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식전행사로 국악공연과 가수 최누리와 풍금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개회식 분위기를 돋울 계획이다.

식전행사 후 각 시군별 선수단 입장, 환영 공연,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의 개회선언, 손병복 울진군수의 환영사, 대회기 게양, 김점두 경상북도 체육회장의 개회사 및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대회사, 체육인 헌장낭독, 내빈축사, 선수·심판 선서 후 개회식의 꽃인 성화점화 순으로 진행된다.

식후 축하행사로 이무진 밴드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정미애, 박군, 홍자, 스테이씨, 정동원 등 인기가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개회식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릴 계획이다.

앞서 도민체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화봉송은 4월 20일 망양정 해맞이 공원과 경주 토함산에서 체화를 시작해 울진군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 계각층 군민들이 참여하는 봉송으로 이뤄진다.

울진군청 소속 사격 국가대표 권은지 선수와 울진 출신 프로배구 신영철 감독이 성화를 최종 점화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도민체육대회 경기와는 별도로 지역을 찾아온 선수단과 임원,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대회기간 중 미술·사진전 등 문화공연 행사를 물론 23개 시·군 농특산물 홍보 부스와 체험부스를 운영해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내 대표적 청정도시이자 문화관광 지역인 울진군에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울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체전을 통해 울진군과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도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농업의 중심, 귀농귀촌은 경북에서!

- 4.21~23까지 서울 aT센터,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 경북도 및 17개시군, 귀농귀촌 최적지 홍보 및 매력 발산

※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경북 매력 적극 홍보로 침체된 농촌 경제 활성화"

경북도는 지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1:1 대면 상담과 특산물 홍보 및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관을 비롯해 청년창업농 지원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청년창업관, K-농업과학기술전시 및 자유농업을 홍보하는 K-농업과학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스마트팜을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돼 운영된다.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스마트팜 시대에 맞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들에게 최신 농업 트

랜드를 제공하고, 지자체별 귀농 및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고소득 작물 소개 등 경북만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명실상부한 귀농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다양한 고소득 작물과 영농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농가가 많고, 단계별 정책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북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튤립 핀 봉화정자문화생활관으로 오세요~”

5월 가정의 달 맞이 전시관 무료관람, 기념품 증정 이벤트 실시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 동안 나이, 지역 관계없이 누정전시관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기념품을 나눠준다.

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색깔의 튤립 꽃밭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한다.

오성대 체육시설사업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시관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누정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튤립 길을 따라 봄을 만끽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고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누각과 정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누정을 테마로 한 누정전시관, 자연속에서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솔향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야외정자 등이 있다.

정금자기자

구미시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기후변화주간 운영



구미시는 제53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를 주제로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기후변화주간에 시민들의 참여 확산을 위해 시청 로비에 기후위기사진 전시(4. 17. ~ 4. 21.), 지구의 날 전일 21일은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과 금오산 금오장터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21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육류 생산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해 "채식 DAY"를 운영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에 구미 대표적 상징물인 YES구미타워, 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지구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참고로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이를 기념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 의성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김주수 의성군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의성군 되도록 노력"



의성군은 지난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센터 앞마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각급기관단체장, 장애인 및 가족, 봉사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상호간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에서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평소 장애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12명의 종사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범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2부 행사로는 노래사랑과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의성군은 관내 6,200여명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행복콜택시운영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과 편견없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의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경주서 국내 원자력산업 우수성과 경쟁력 알린다

- HICO 1층 전시장에서 4.24.~4.26.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열려

-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 2023), 제38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도 통합 개최

경주에서 국내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원전·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주시는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이 전시회와 부대행사로 나눠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후원한다. 또 행사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한국원자력 학회 주관으로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와 '제38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도 통합 개최된다.

산업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을 비롯해 오라노(프랑스), 웨스팅하우스(미국) 등 해외기업과 동인엔지니어링, 유우앤지 등 국내 원전 관련 사업의 대표 등 4개국, 47개 기관이 대거 참가해 87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전시회는 ▲원자력 안전, 원전기자재 및 설비 ▲원전해체, 방폐물 처리·운송·저장 ▲방사선 의료 등 에너지 전 분야 등이 전시돼 원전 기자재 신제품과 기술 교류로 원자력산업 부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 행사 첫날 오전에는 국내의 판로개척을 위해 주요 원전 공기업 5곳의 '동반성장사업 설명회'가 개최되며, 첫날 오후와 둘째 날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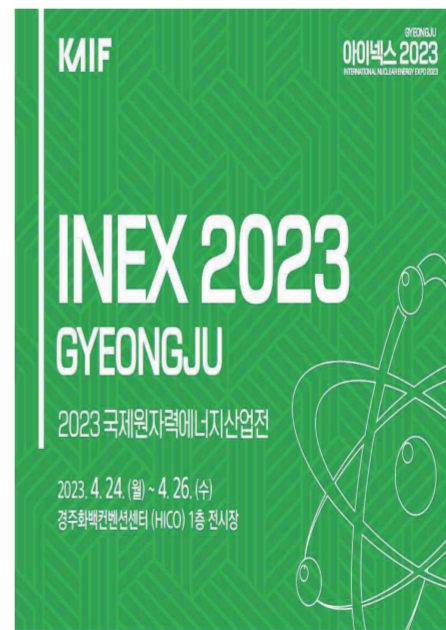
전부터는 8개 기관 12개 본부가 참여하는 '원자력 및 전력 기자재 구매 상담회'가 열리며, 둘째 날 오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국내 원전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해 'UAE Nawah Energy Company 공급자 설명회'가 실시되고, 오후에는 해외진출 희망기업 기자재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5개 공공 기관의 취업설명회 ▲공공 및 민간기업 7곳의 취업상담회 ▲취업 준비존, 취업힐링, 취업투어존의 취업체험센터 등 통합채용박람회가 펼쳐진다.

특히 23일부터 2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3층에서 열리는 '2023 원자력산업 국제회의'는 3개의 특별 세션과 12개 전문분야별 기술세션에서 약 30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여기서 한국, 미국, 일본 원자력학회장을 포함한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 수출 대상국인 UAE, 폴란드, 체코 등에서도 참가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고유가 사태 등 국제에너지 정세를 볼 때 국가산업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국내 원자력의 우수성을 바로 알리고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에 활력이 넘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김동현기자

# 전북도, 새로운 전북 함께 만들 도민감사관 위촉

### 도민감사관 13개 분야 56명, 2년간 도정 청렴 파수꾼 역할



전북도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도정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제6기 도민감사관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회계, 건축, 보건, 환경, 문화 예술 등 13개 분야 56명의 전문가들로 선정됐으며, 4월부터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감사관은 도민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을 신고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도민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위촉식에 이어 2023년 도민감사관 운영계획 설명과 더불어 도민 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민감사관들은 지역 일선현장에서 평소 체감하고 있던 불편사항을 비롯해 지역현안 사업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에 걸맞은 특별한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바꿀 다

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이런 때일수록 청렴과 상식 등 기본 원칙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청렴이야말로 전라북도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만큼 도민감사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민감사관 제도는 2003년 명예감찰관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13년 6월 청렴한 전라북도를 만들고 도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남출/기자

# 장흥군, '농촌유희시설 지역활성화사업'연이은 공모선정 쾌거

### 정남진어울촌에 이어 소등섬문화복지센터도 새단장 나서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희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공모에 연이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관산을 신동리에 위치한 정남진어울촌에 이어, 용산면 상발리에 위치한 소등섬문화복지센터도 농촌유희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에 방치된 유희시설을 새 단장하여 주민소득 창출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해당 유희시설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지역주민 면담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예비계획을 준비하고 사업타당성 평가와 전남도 현장평가를 거쳤다.

그 성과로 올해 1월에는 정남진어울촌이, 이 달에는 소등섬문화복지센터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동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해당 건물들은 개소당 4.5억원을 투입하여 구판장 및 마을카페 공간으로 조성된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거친 후 정남진어울촌은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고, 소등섬문화복지센터는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사후 운영은 마을협동조합등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어울촌에 이어 이번에는 소등섬문화복지센터가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희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농촌경제와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챗GPT,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도시 완주서 진행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25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2층)에서 '2023 문화도시 콜로키움 - 챗GPT,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한다.

'2023 문화도시콜로키움'은 완주문화도시 추진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뿐 아니라 행정, 문화공동체 활동가, 문화기획자, 지역예술가, 주민 등 문화도시에 참여하는 다양한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최근 큰 화제인 '챗GPT'다.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최근 이를 활용한 혁신적 기술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처리나 정보처리 영역을 넘어 기획·문화·예술 등 창작의 영역까지 확장되며 보안, 저작권 등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챗GPT'를 통한 변화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활용에 앞서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바꾸는 '챗GPT'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윤리적·기술적 질문과 고민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날 특강은 철학자이자 대안연구공동체 '철학학교 해움'의 허경 교장이 진행한다.

허경 교장은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최근 진주, 부산, 일산 등에서 '챗GPT'와 관련한 다양한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2023 문화도시 콜로키움' 참여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광수/기자

**2023 문화도시 콜로키움**  
챗GPT, 어떻게 볼 것인가  
허경 (철학자, 철학학교 해움)  
2023.04.26 13:00~15:00  
장소: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 (2층)  
신청: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061-291-2000)  
문의: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061-291-2000)

# 최경식 남원시장,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 환경부·기재부 등 중앙부처 찾아 국비 지원 건의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매일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자 등을 동시에 접촉하며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최 시장은 지난 20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고 남원시 역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건의했다.

특히 이번 출장은 사업별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동시 방문하여 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날은 전북도청에서 공모 발표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 출장까지 병행하는 등 설 틈 없는 예산 행보를 펼쳤다.

우선 환경부를 찾은 최 시장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총사업비 489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1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하여 ▲ 드론-UAM 가상체험관(총사업비 250억원), ▲ 남원형 항공산업단지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690억원), ▲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783억



원), ▲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200억원), ▲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16억원), ▲ 노후 상수관망 정비(133억원)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는 최근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면담하고, 남원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경식 시장은 "부처별 예산 편성

이 5월 마무리 되기 이전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동시에 공략하여 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시는 부처 예산편성이 진행되는 5월말까지 수시 부처 방문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과과의 간담 및 세종 현지 전략회의 개최를 계획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역사문화, 생태·경관 명소 10곳 관광 개발 역량 집중

### 전라남도 나주시가 500만 관광시대 대표 관광 10선' 최종 발표

전라남도 나주시가 500만 관광시대 대표 관광 10선'을 최종 발표했다.

나주시는 최근 대표 관광명소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표 관광명소 명칭을 '나주 관광 10선'으로 정하고 대표 관광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주 관광 10선은 '금성관', '영산강 등대와 황포돛배', '빛가람호수공원 전망대', '느리지전망대',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고분군', '남평 드림드들강 솔밭 유원지', '불회사', '산림자원연구소', '천연염색박물관', '금성산' 순이다.

고대 마한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2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나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 경관을 자랑하는 생태 관광 명소가 고루 포함됐다.

평가·선정은 문헌 및 한국관광대이트랩(2022년도) 인기 관광지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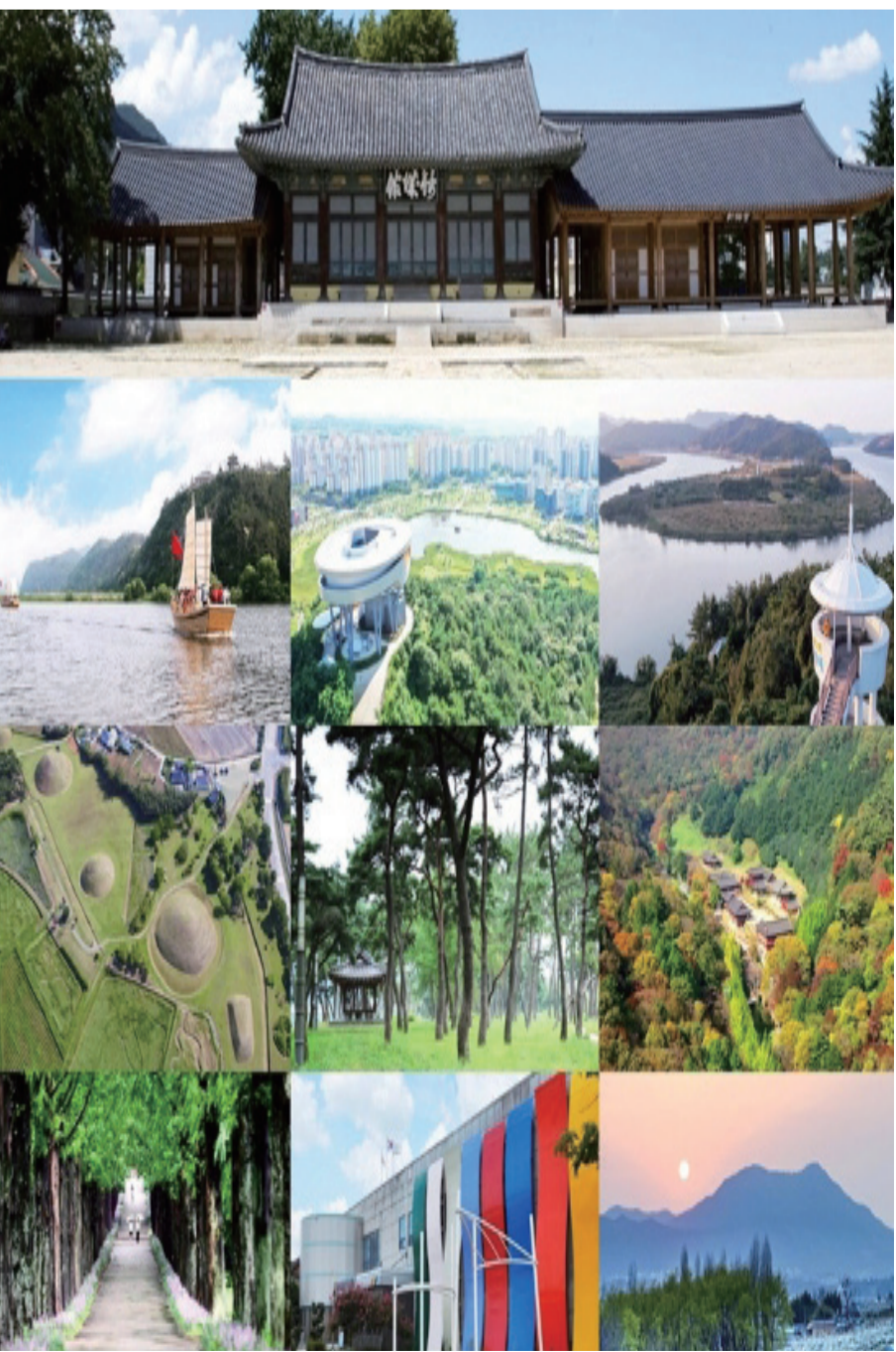
계, 전문가 자문, 시민·관광객 온라인 설문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지에 오른 2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역사성, 상징성, 경관성 등 관광자원이 갖는 가치와 인지도, SNS확산 가능성을 포함한 관광 상품성에 중점을 두고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나주시는 대표 관광명소로 선정된 나주관광 10선을 중심으로 관광 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선호도와 관광자원으로서 역사와 상징성, 우수한 경관,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주 관광 10선을 선정했다"며 "불거리, 먹거리, 즐거리,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500만 나주 관광 시대 구현을 위한 권역별 홍보·마케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 '나주 관광 10선' 금성관(맨 위), (왼쪽부터) 황포돛배, '빛가람호수공원 전망대', '느리지전망대',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고분군', '남평 드림드들강 솔밭 유원지', '불회사', '산림자원연구소', '천연염색박물관', '금성산'.

# 구례군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 개최



전남 구례군은 지난 21일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을 수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압화대전에는 11개국에서 348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엄정한 심사를 150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수상 작품은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된다.

올해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는 김화선 작가의 '외갓집 뒤안'에게 돌아갔다. 외갓집 뒤안'은 작가의 어릴 적 놀이터이며 따뜻한 위로로 주던 곳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생각나는 광경을 작품에 담아냈다.

김화선 작가는 "꽃의 아름다움에 반해 시작하게 된 압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울고 웃었던 긴 시간은 이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환희로 바뀌었다"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사랑하는 가족과 꽃을 사랑하고 봄을 기다리는 많은 압화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압화대전위원회 우두성 위원장은 "공모전을 개최할수록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외전에서는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중국, 대만을 포함해 총 11개국에서 작품을 출품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

다.

김순호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22회를 맞은 대한민국압화대전에 많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압화 예술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야생화와 자연예술이 융합되는 가치창조로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위해 구례군이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 압화 작가 특별초대전, 제2회 상상누름꽃 경연 작품전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많은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김성현/기자

### 함평군, 나비대축제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이 제25회 나비대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나비대축제 자원봉사자 친절교육이 지난 20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상익 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친절교육, 축제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설명, 활동요령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을 위해 초빙된 이정화 강사는 '손님맞이 친절 체온 올리기'라는 주제로 친절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해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진/기자

이상익 군수는 "나비대축제가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4년 만에 완전한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미소와 친절로 관광객을 맞아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군립미술관, 다육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며 축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전남도사회복지사, 국가대표로서도민복지증진다짐

## 순천시 복지사대회...역할과 위상 재정립·유공자 격려

전라남도는 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제9회 전남 사회복지사 대회'를 개최하고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정병관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사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우리는 국가대표 사회복지사'라는 주제로 열린 사회복지사 대회는 도내 사회복지사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된 행사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 복지 증

진에 힘써온 유공자 55명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다양한 맞춤형 행복시책을 발굴해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정 의무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상해보험료 등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에 앞장서며 사회복지사 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는 1998년 10월에 창립해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보수교육, 처우 개선 등 사업을 하고 있다. 도내 1만 2천여 명이 이르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우리는 국가대표 사회복지사'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전남사회복지사 대회에서 김순정 여수시니어클럽대표로부터 여수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순천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3정원박람회와 연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업

순천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분부는 지난 20일 순천시청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을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제들은 특히, 전통시장 관광바우처 발행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시장 관광바우처 사업은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순천시 전통시장(웃장, 아랫장, 역전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예정이다.

바우처는 봄빛 동행축제 기간인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서문, 남문 종합안내소에서



개인에게 5천 원권 1매를 배부할 계획이며, 바우처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장 20일 만에 160만 명이 박람회를 방문하는 등 많은 분들이 순

천시를 찾아주고 있다"며 "편리한 교통수단, 소상공인 지원 등에 감사드리며, 박람회 기간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한국의 인문학 지성 해남에서 모두 만나다"

## 해남군, 5월부터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인문학콘서트 운영

땅끝해남으로 우리나라의 인문학 지성들이 모두 모인다.

해남군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차례, 한국 인문학계를 대표하는 명사를 초청하는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첫 번째로 5월 25일 이창동 영화감독이 해남을 찾는다. 영화의 황홀경을 주제로 자신이 연출한 '박하사탕'과 '시' 등 작품을 통해 영화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축망받는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으로서도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20년 넘게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창동 감독과의 특별한 만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황지우 시인이 대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해남 출신인 황지우 시인은 최근 귀향하여 고향에서 작품활동과 함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문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시의 전성시대를 이끈 대표시인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나는 너다', '계는 속의 연꽃' 등 작품집이 있으며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

이창동 감독 초청 인문학 콘서트는 해남동초등학교 꿈누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누구나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땅끝순례문학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인문학 콘서트는 화천 이외 수 집을 건축한 조병수 건축가, 나의 문화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전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한국에 최초로 마티네 콘서트를 기획한 김용배 피아니스트, '갈의 노래', '남한산성' 등의 대표작을 둔 김훈 작가 등 명사와의 만남을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5월 25일 이창동 감독 '영화의 황홀경 - '박하사탕'과 '시', 6월 29일 조병수 건축가 '기후변동시대의 건축 - '땅집'과 '막집'에 이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우리문화유산의 모태-해남·진도·강진', 김용배 피아니스트 '한 여름밤의 피아노 이야기-쇼팽 '야상곡'·'혁명'', 김훈 작가 '영원하는 역사- '갈의 노래'와 '하얼빈'이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영화, 건축, 미술사,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기회를 통해 인문 해남의 위상을 제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문학 최고의 지성들과 함께하는 드문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땅끝해남에서 마련한 인문학 콘서트를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선애/기자

# 음악도시 강진의 수요일밤엔 낭만이 흐른다

강진군이 '음악도시 강진'의 브랜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21일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음악이 있는 오감(五感)산책' 콘서트가 오는 6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면서 관광객들에게 '봄밤의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는 각 장르별로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한다. 뮤지션 마술 및 퍼포먼스(테디, 정운호, 유대진), 댄스(버닝업, 울드엔뉴, 무빈업, 템플로, 일브로쿠루, 스페셜 커넥션), 탱고(뜻밖의 탱고), 가요(최나리, 김금엽, 김은정), 팝클래식(양상보보니), 어쿠스틱(달빛 거지들, 허윤정 트리오), 블루스(마인드 바디 앤 소울), 탭댄스와 재즈(보헤미안)등 총 8개 장르, 18팀이 출연한다.

특히 5월 31일, 출연하는 4인조 블루스밴드 마인드 바디 앤 소울(Mind Body And Soul)은 올해 초 미국 댄퍼스에서 열린 '2023 국제블루스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

아울러 5월 3일과 24일 무대는 기획부터 실제 공연까지 지역 음악예술인들이 직접 꾸려 나갈 예정이다. 지역 음악예술인을 지원해 자생력

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

군 관계자는 "강진이 음악도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군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먼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는 '나는 어떤 음악도시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초기 단계로 여러 도전 과제 중 '어려운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를 묻기 위해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 완도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성황, 2주 만에 3만여 명 다녀가

## 지난 주말에만 9천여 명 방문, 관광지와 식당 등 북적북적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에서 4월 8일부터 시작된 '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지난 20일까지 총 3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에는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 오라'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열렸으며, 개막식이 있던 주말에만 9천여 명이 방문해 주요 관광지가 북적북적했다.

개막식은 축제 개최를 축하하며 청산 농악대와 클래식·국악 공연, 그림의 타종식과 군 홍보 대사인 배우 손현주와 함께 나비 2천 마리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아, 청산 가자' 등이 진행됐다.

빛 공해가 적은 청산도라 가능한 은하수 출시 프로그램 '별 불 일 있는 청산도'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카오트에서 '별 불 일 있는 청산도'

를 검색하면 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산 해양치유 공원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 맥반석 치유 시설을 예약자에 한 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오는 5월 7일까지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올봄, 유채꽃으로 물든 청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고, 슬로길을 여유롭게 걸으며, 완도에서만 할 수 있는 해양치유를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산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푸른 바다, 산, 구들장은, 돌담 등 그림의 풍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하여 붙여진 '슬로길'은 전체 11코스, 42.195km에 이르며,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됐다.

양영을/기자

# 환상적 낭만 선사하는 해상W쇼, 목포의 밤을 수놓는다

## 4월 29일 첫 공연...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 공연

목포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2023 목포해상W쇼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찾아온다.

목포시는 오는 29일 목포해상W쇼 첫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해상W쇼는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정기 공연한다.

또한, 여름휴가철 특별공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념 특별공연도 3회 추가 편성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W'가 분수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착안된 W쇼는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멋진(Wonderful)공연으로 감동(Wow)을 선사하는 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W쇼는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뮤지컬 공연과 불꽃이 결합된 국내 유일 해상 오브제 불꽃쇼로, 지난해 많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으며,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는 그동안 소음 민원을 다소 줄이기 위해 불꽃양을 조절하고 횡수 주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로 공연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주민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 104회 전국체전 및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공연을 펼쳐 환상적인 낭만을 선사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을 개선하고 있어 바다분수는 가동하지 않는다. 기상악화 시에는 공연 진행이 어려워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시는 또한, 공연당일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해상W쇼는 완성도를 높인 신규 작품을 제작해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곡과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 목포해상W쇼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가져가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 강원도,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주력업종 선정

## 과감한 인센티브로 반도체 등 新성장동력 업종 기업 유치 노력

강원도가 반도체 등 성장동력산업 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시·군별 주력업종을 선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력업종’은 도(道)가 개별 시·군의 산업분포, 기업유형 정책 등 경제 상황 전반을 고려해 선정하는 일종의 특별업종이다.

앞선 2월, 도(道)는 주력업종의 범위·지정절차·지원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주력업종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보조금 지원 시 기존

비율에서 5%p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금번 주력업종 선정은 강원도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시·군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4개 시군 선정)’이 가장 많고, ‘전기장비 제조업(13개 시군)’,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1개 시군)’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중대규모 투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창업기업의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춰,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생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력업종 지정에 따른 이같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도 윤인재 산업국장은 “금번 도내 주력업종 선정을 통한 파격적 인센티브가 반도체 등 첨단업종 기업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보다 개선된 강원도 내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물가 등으로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 양양군,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

양양군이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불 조성과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부행사장으로 선정된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내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주행사장인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고성군)을 비롯하여 주변 도시인 속초시·인제군·양양군에서 열리게 된다.

양양군의 엑스포 심볼마크는 ‘잎’이며, 이는 ‘힐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물론, 목공예 기술자들의 경연대회가 개최되고, 가족 힐링 숲속 목공예품 등 여러 가지 체험도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이 산림 속에서 맘껏 휴양·치유 활동을 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군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포토존과 조

형물 설치 등 경관을 정비하고, 행사 기간 임박한 7~8월 경에는 주요도로변 경관조성(꽃밭, 가로화분 설치)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와 개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엑스포 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 편히 힐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안전한 산림 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자생식물원 △숲 해설 프로그램 △이동악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짚라인·숲속기차 등 산림교육·체험 거리가 많아,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휴양시설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홍천군 온라인 인성교육 교실 ‘인성 한 움큼’ 운영

홍천군은 강원도 최초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홍천군 온라인 인성교육 교실 ‘인성 한 움큼’을 5월 1일부터 운영한다.

코로나 19 이후 일상생활의 부재, 관계의 단절 등으로 군민들의 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홍천군은 온라인 인성교육 교실을 운영하게 됐다.

홍천군 온라인 인성 교육 교실은 홍천군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에서 구독할 수 있으며 5월 1일 총 5개의 영상이 게시 될 예정이며, 6월부터는 매월 1일자에 1개의 영상 자료가 12월 까지 게시 될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오늘날 자기이해, 인간관계 등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본 영상이 좋은 교육 자료가 되길 바라며, 홍천군 온라인 인성교육 교실 운영을 통하여 홍천군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나/기자

## 태백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및 광해개황조사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태백시는 지난 17일 산업부 주관으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및 광해개황조사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 2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의 개요, 현황분석, 과업수행 계획 및 관리방안 등을 보고받고 성공적 용역수행을 위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이상호 태백시장은 석공부지를 지자체에 모두 환원해주고 폐광이 되어 광부들이 폐광대책비는 다 받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어 태백을 떠나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역단체에서도 석공의 소유재산 환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폐광 후 주민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 마련, 폐광과 동시 광해복구 및 일자리 창출, 폐광도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는 조기폐광지역 석공부지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해당 지자체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석공부지 개발여건을 고려한 도입가능사업선정 및 부지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폐광에 대비하여 광해발생 현황과 종합적인 광해복구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이번 용역과업에 정부주도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 대학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주거단지, 스포츠단지 조성 및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반영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용역사와 함께 현지답사, 관계 공무원 및 시민 간담회,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 동해시, 계약·회계분야 전문성 강화한다

4.21.(금) 14:00~17:00 / 2023년 지자체(계약·회계분야) 방문교육

동해시는 회계(계약)업무 담당자의 감사직적 부담으로 인한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적극행정 실천에 나섰다

이에, 지난 21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실·과·소·동 회계담당자 50명 및 임용 2년 이하 신규직원 135명, 사업부서 10억원 이상 사업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를 초빙해 계약·회계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약 컨설턴트, 네이버 예산회계 실무 카데 운영진,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기관 회계실무 출강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조양제 예산회계실무 부산연구원장이 강사로 초빙돼 계약 실무 특강 및 현안 질의응답 등 다양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방계약 제도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차세대 지방 재정 프로그램 운영, 발주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알아야 할 회계 및 계약 업무처리, 법령 핵심 조항 및 복잡한 법령 해석 등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시

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계약 관련 법령 등 예산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계약·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강원도 계약실적 평가’에서 도내업체 계약, 하도급 대금지급, 가관장 관심도 및 우수사례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회계업무의 통일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 구현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회계직무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영양 산나물축제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 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 영동군, 충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5개 선정

충북 영동군이 맞춤형 기업 지원과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주관한 2023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영동군이 공모한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그동안 낙후됐던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인력유입과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기숙사 신축사업 1개 △휴게실 설치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3개 △기반시설 조성사업 1개 등 총 3억원 규모, 5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업과 근로자가 영동에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군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군은 특히 기숙사 신축사업을 통해 주거지와 떨어진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해 지역 내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휴게실 설치 및 작업공간 보수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편안하고 안

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 능력 및 근로자 만족도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22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에서도 기숙사 신축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군은 공모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기업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해 기업 성장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닦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은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제조업체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창업,공장설립 상담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및 인정보 제공 등의 민원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접 기업 등을 현장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지역 내 기업체들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살피고 협력 다져

## 2023년 화랑훈련 준비보고회 개최...관·군·경·소방 체계 점검

충남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화랑훈련에 대비해 준비사항보고회를 개최했다.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대세 확립, 안보 의식 고취 및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년 만에 실시한다.

도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인 김영행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김관수 32보병사단장, 도 실·국장 및 9개 시군 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기관별 보고, 주제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2작전사령부의 화랑훈련 통제 및 평가계획과 32사단 화랑훈련 준비·실시계획, 도 화랑훈련 지원계획을 공유했다.

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상향조치 절차 △주민신고망 관리·홍보



방안 △도경찰청 경찰작전 수행 절차 등을 주제로 참석자 간 다양한 의견

을 나눴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훈련 기간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와 근무 기강 확립, 훈련 관련 자료 보안업무 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올해는 우리 도에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3개의 훈련이 집중된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도의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관·군·경·소방 협력체계를 확인하는 등 훈련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계자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라며 "다음달 화랑훈련으로 도와 15개 시군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절차를 숙지하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대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천안시,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직장 선도

### 공직유관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천안시는 20일~21일 이틀에 걸쳐 공직유관기관과 출자·출연기관 1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봉사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사랑학학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등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 차별적 인식개선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열렸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통해 성희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및 조치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강의를는 젠더폭력예방 경남포럼 대표 김미경 전문강사가 '언제 어디서나 성인지감수성을 온(ON)하게요'라는 주제로 운영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강조했다.

박재현 복지문화회장은 "건강한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 그리고 역할 인식을 통한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며 "더욱 섬세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폭력예방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올해 2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으로 신규공무원, 고위직, 중간관리자, 체육·예술분야 종사자, 비정규직, 일자리 참여자 등 연중 대상자별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매월 실시해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 아산시, 계마위 환경개선 본격 착수... 이순신 역사 공간 조성 기대



아산시가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주)와 '계마위 통과구간 환경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계마위 환경개선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박경귀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임정희 청장, 정성욱 대표, 이종학 덕수이씨 충무공파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현재 공사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계마위 통과 구간(50m) 공사를 기존 성토방식에서 교량화 방식으로

## 박경귀 시장 "계마위 재조명 통해 장군의 정신 계승할 것"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계마위는 임진왜란 당시 백의종군 길에 올랐던 장군을 만나고자 전남 수군 군영에서 배를 타고 북상 중 임종한 노모의 시신을 이순신 장군이 맞이한 역사가 있는 곳으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2호로 지정돼있다.

시는 계마위 인근을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정신,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계마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개선사업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고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 사업관리기관인 대전지방국

토관리청, 사업시행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맺게 된 결실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종학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순신 장군의 얼을 계승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후손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운 이순신 축제와 제1회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계마위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장군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뜻깊다"며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청주시,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 공모사업 발굴에 주력

### 선제적으로 정부 공모사업 파악, 빠른 대응으로 공모 준비 박차

청주시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선다.

이제까지 단순 현황파악에 그치던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편해 사업 응모 준비 단계부터 사업 추진까지 과정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고 점검한다.

미신청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한다. 향후 공모 시 이를 반영해 사전에 탈락요인을 제거, 공모 선정에 박차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 2022년 선정된 공모사업 총 110건, 국도비 5,145억원 확보

지난 해 시는 총 139건의 정부사업에 공모했다. 이중 110건이 선정돼 국도비 5,145억 원을 확보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작년 12월에 선정된 3,300억 원 규모의 지역 맞춤

형 통합하천사업으로 국도비 2,318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미호강과 무심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즉, 팔정도심하천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 올해도 일자리·농촌공간정비 등 역점사업에 국비확보 완료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과 3월 국비발굴보고회와 정부 업무보고대응 보고회를 진행하는 등 보다 진취적으로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농촌공간정비(북이면 장양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마동1리) 등 총사업비 536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새롭게 선정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운영사업 등 시 역점 추진분

야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 공모사업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총사업비 2,727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응모해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

시는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던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편해 신규 공모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모사업 총괄 관리부서는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을 사전에 예측, 공모 동향을 각 부서에 전파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시로 공모사업 응모 가능여부를 검토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사업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모사업 세부내역을 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사업별 추진내역을 점검·집중 관리한다.

미신청사업에 대해서는 탈락사유를

분석해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응모전략을 수립한다.

▶ 공모사업 전문 자제 컨설팅 기획

시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 전문 컨설팅을 기획 중이다.

사업담당자의 역량에만 의존해온 사업계획 작성, 응모전략 수립 등 공모사업 추진업무에 대해 향후 설립될 청주시 시정연구원과 연계해 사업담당자 확보를 위한 논의를 개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적합성, 주민수혜도,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신규 사업 유치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올해도 최대한 많은 신규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진천군, 대한민국안전·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진천군은 오는 6월 16일까지 61일간 군민 생활 전반에 거친 중요시설과 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 4개소와 관련부서에서 신청한 시설 89개를 확정, 총 93개소 시설에 대해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생활·여가시설 19개소 △산업시설 14개소 △복지·식량분야 13개소 △교통시설 8개소 △건축시설 7개소 등으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토목·건축·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박준규 진천부군수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주민생활 밀접시설 위주 건설현장, 생활·여가시설, 환경·에너지 시설 4개소를 찾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실태와 재난 사고에 대비한 시설물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6만 1814㎡ 규모

로 조성하는 진천2호 근린공원 조성현장 △3만 4008㎡ 규모 719세대 진천 교정2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 △392세대 공동주택 남해오네뜨 주민 편의시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한 결함은 사용금지·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박 부군수는 "안전은 사전에 지키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해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매년 일정 기간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해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제도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최만식/기자

##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지원 경품이벤트 행사

음성군은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음성군에 따르면, 침체돼 가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촉진 정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생문화축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생문화축제 사업은 무극시장 등 4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

품이벤트 행사 지원사업이다.

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2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 지참 고객에게 시장상인회 및 해당 점포에서 경품권을 배부하고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삼성시장이 5월 21일, 무극시장이 5월 25일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며, 대소시장과 설성골목형상점가는 하반기 행사를 계획 중이다.

경품권 배부 기간은 삼성시장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극시장이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2만원 이상 소비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상인회 및 점포에서 경품권을 배부받으면 된다. 음성시장에서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동행세일 경품 추첨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7일부터 개최되는 품바 축제와 연계해 통해 시장 방문 이용객을 높이고 시장 내 소비 촉진을 위해 5

월 한달 간 음성시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을 활용한 경품, 사은행사, 팝업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생문화축제, 동행세일 경품 추첨 등 시책 추진을 통해서 시장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제공을 통해 시장 재방문율을 높이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제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담양군, 2023년 담양군민의 상·명예군민증 수상자 선정 '2023년 장흥군민의 상' 수상자, 장흥군수협 조합장 이성배 선정

### 군민의 상 분상 각 부문별 4명, 특별상 8명 선정

담양군은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담양군민의 상' 및 '담양군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담양군민의 상 분상에는 부문별 4명이 선정됐다. 사회복지 부문 분상 수상자인 권창희 회장은 30년간 1,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 촬영용 메이크업을 봉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교육·문화 부문 분상 수상자인 임홍균 회장은 전직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익명으로 2억 원 기탁을 시작으로 총 4억여 원을 등불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현재까지 꾸준한 후원을 통해 지역인재육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사회복지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체육진흥 부문 국인홍 회장은 지역내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우수선수 발굴과 실전 훈련을 통해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경제 부문 박일주 회장은 25년

간 포도 농업에 종사한 포도 명인으로, 고품질 포도 재배 농업을 개발해 농가 소득에 이바지했으며, 유기농 포도 와인을 개발, '고서와인'이라는 지역 특산물로 상품화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3년에는 사회복지 부문 장려상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한국신식농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민의 상 특별상에는 이명은 담양군복지재단 이사, 고길석 수완센터럴병원 대표원장, 조미숙 재경남담양군향우회 부회장, 송진욱 (주)효진기공 대표, 나경복 (KB스타즈, 제18회 아시아안게임 배구 국가대표), 나상호 선수(FC서울,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이성백 재경담양군향우회장, 김남현 재경담양군향우회 사무국장 등 8명이 선정됐다.

특별상은 담양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히 공이 있으나 수상후보자의 자격여건 등이 다소 부족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담양군 명예군민증은 서영채 한국국토정보공사 담양이사장, 이영신 (주)중앙청과 부사장, 장호직 무등생태요



양병일 이사장, 조규열 한마음요양병원장, 조명래 전라남도립대학교 교무기획처장이 선정됐다.

담양군 명예군민증은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지역 출신 인사로 대외적으로 담양군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등으로 선정된다.

군은 오는 5월 3일 '제44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담양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 시상식을 진행해 축하할 계획이다.

오홍근/기자

### 꼬시래기 양식 및 보급으로 어민 소득증대 기여

장흥군은 18일 장흥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66세)을 지역개발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은 오늘 4월 28일 '제53회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 기념식에서 할 예정이다.

수상자로 결정된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 신품종 개발, 꼬시래기의 양식 성공 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다.

또한 합병대상이었던 수협을 1등급 수협으로 성장시키고, 서울 고척동

지점의 수익금을 지역주민에 환원했으며, 장학금 기부와 봉사활동 등 이웃사랑 실천과 군정발전에도 적극 협력해 왔다.

장흥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나, 인재육성과 향토 문화 및 체육발전에 기여, 평소 효도하는 사회윤리 준수 등 군민의 표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82년에 제정되어 지난해까지 86명이 수상했다.

박재원/기자



## 울진군, 현정화 감독 홍보대사 위촉

### 맑은 공기 속 즐기는 스포츠 및 다양한 울진 매력 홍보



울진군은 20일 한국 탁구의 전설로 불리는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을 울진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울진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획득한 대한민국 최초 여자복식 금메달을 비롯해 통산 금메달만 75개를 기록한 '탁구 여제(女帝)'로,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탁구연맹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스포츠 스타다. 현재는 한국마사회 여자탁구단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울진군은 2018년 '현정화와 함께하

는 울진대개와 붉은대개 전국오픈 탁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정화 감독과 인연을 맺었으며, 이를 계기로 홍보대사 위촉을 추진했다.

현정화 감독은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 후, 울진에서 개최되는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화 안치식 주자로 나서 홍보대사로서의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앞으로 현 감독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알리고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정화 감독은 "군 단위로 유일한 경북도민체전을 두 번 개최한 지역이자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울진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스포츠인으로서 매우 영광스럽다"며 "명품 관광자원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도시 울진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 현정화 감독을 울진군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매력적인 울진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울진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광주 서구, 숨은일꾼 4명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

### 이기성·이명식·박찬일·추왕석...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 4명을 '제29회 서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서구는 '사회·봉사 부문' 이기성 유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 위원장(광주소상공인협회 회장),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이명식 목촌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교육·문화·체육 부문' 박찬일 (재)광주서구장학재단 이사(서구자원봉사센터 전 이사장), '지역·경제 부문' 추왕석 서구시니어클럽 관장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부문' 이기성 전 위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마을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예방 활동, 반찬나눔 안부확인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생활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교육·환경·안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아름도시 도시 가꾸기 부문' 이명식 대표는 주택관리 분야에 20여 년을 종사하며 꽃나무 심기, 텃밭 가꾸

기, 빗물저금통, 탄소은행참여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며 공동체문화 정착에도 애쓰고 있다.

'교육·문화·체육 부문' 박찬일 이사는 (재)서구장학재단 창립이사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설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후 장학사업 확대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인재발굴과 육성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이사는 (사)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확산하는데 앞장섰다.

'지역·경제 부문' 추왕석 관장은 15년 간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 창업·육성에 앞장서며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해왔다. 특히 최근에 양동천원국시, 오!인절미 디저트카페 개소를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수/기자



1994년 제정된 '서구민상'은 광주 서구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해마다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구민상 시상식은 오는 5월2일 10시 서구청 들불홀에서 '제29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STAY여더 07

제13회 2023. 4. 28.(금) - 4. 30.(일) 영덕 축산항 일원

# 영덕물고기시장 축제

### 전북벤처투자포럼 성료... 창업생태계 활력 높여가

#### 민간이 생태계를 만들고 공공은 뒷받침... 민간 벤처투자 교류장

지역 창업자들과 수도권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벤처투자포럼이 활성화되며, 지역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1일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민간투자자, 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투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는 수도권 및 지역 16개 벤처투자사와 20여명이 넘는 엔젤투자자가 참석하며 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올해 5월에 결성될 '전북도-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3개 투자사가 참여하는 1:1 투자상담부스 운영과 유망 스타트업으로 케나프를 이용한 친환경 조사로 제조 기업인(주)을빅(대표 하동욱), 반려견 치매진단 솔루션(주)이베이직(대표 최주영)의 기업 투자설명회(IR)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어진 포럼에서는 벤처업계 대부분이라고 불리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참석해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 회장은 하나로미디어를 창업

한 후 SK텔레콤에 매각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를 만들어 활동했으며, 그가 주도한 테헤란로 고벤처포럼은 2013년부터 10년째 운영중으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중소벤처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엔젤투자자를 교육 및 관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 TIPS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이 TIPS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고 회장이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연에서 고 회장은 "지방소멸 문제의 극복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있다."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인재와 혁신 기업들이 나오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창업기업의 벤처투자와 TIPS프로그램 선정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고 회장에게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자원이다. 전라북도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벤처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도내 투자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남홍/기자

## 현대로템, 연이은 대규모 고속철 수주로 민선8기 경남철도산업 견인

#### 민·관 협력과 범정부적 지원의 결실...고속철 해외 진출 청신호

경상남도는 21일 (주)SR의 1조 원 규모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철) 112량 및 유지보수서비스 입찰의 개찰결과, 도내 소재기업인 현대로템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지난 3월 코레일의 EMU-320 136량 입찰과 유사하게 자격요건에 고속철 납품실적을 제외하여, 해외 업체가 국내소재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응찰하는 등 고속철 제조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속철 입찰에 유지보수서비스가 포함되어, 해당분야의 기술점수 확보 여부가 입찰결과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발표된 결과는 현대로템의 낙승이었다. 현대로템은 기술점수에서 경쟁사를 따돌리며 단독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현대로템이 고속철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서비스 점수에서도 정비의 효율성, 인력조달 용이성, 정비경험 등의 측면에서 국내의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SR은 이후 안전성평가를 거쳐 28일까지는 최종 낙찰자 결정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지난 3월 코레일이 발주한 7,100억 원 규모의 고속철에 이어 이번 (주)SR이 발주한 1조 원 규모 고속철 수주로, 한 달 사이 총 1조 7,100억 원 규모의 수주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그동안 고속철 입찰자격 변경에 따른 해외업체의 부분별한 국내 고속철 시장 진입 등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지역을 방

문한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직접 수차례 전달했으며, 지역상공회와 도 의회에서도 철도 분야의 입찰제도 개선,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현대로템의 이번 수주가 도내 50개 협력사(종업원 17,000여 명) 일감 수혜, 2,500여 명의 고용 유발 및 고속철 납품 실적 확보로 국

내 첫 고속철 해외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연이은 대규모 고속철 수주로 지역에 많은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철도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 인천 산업단지, '밤에도 빛나는 산업공간으로' 재창조



인천광역시시는 21일 인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비전선포식'을 주관산업단지 내 강운공업(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선포식에는 인천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조덕형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김재환 인천유망기업연합회장, 한상담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장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천 산업단지 가치 재창조를 통한 활성화 종합비전 및 핵심전략 발표,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대전환의 시작점을 알리는 세레모니,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산업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며, 인천시민들의 일터로서 근로자의 꿈과 노력이 쌓여있는 터전임과 동시에 인천 제조업 총 생산액의 65.8%, 고용의 61.1%를 담당하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산업공동화, 기업 영세화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로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젊은 인력의 취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밀집지역 이미지를 벗고 사람들이 찾고자 하고 싶은 매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산업단지 고유의 자산과 가치를 활용해 산단을 보고, 즐기고,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은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노후 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대규모 주거공간과 인접한 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소비공간과 산

업공간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밤에도 빛나는 초일류 산업공간으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산업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재창조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 콘텐츠 다양화 ▲산업혁신 문화활동 장소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인천기계, 인천지방, 뷰티폴파크 등 인천지역 전체 산업단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첫 시작인 남동산업단지는 입지 경쟁력, 특화된 산업문화, 시민·근로자를 중심으로한 휴식·쇼핑·체험을 위한 공간(점)을 설정하고, 각각의 대상지를 길(선)로 연결해 최종에는 중심축(면)으로 확대하는 점·선·면 개념을 도입해 3개 축·5개 권역으로 중심축과 구역별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안산업단지는 핵심엔지니어링 한국폴리텍대학교를 거점으로 시민과 근로자, 청년이 주도하는 신성장산업 중심 산단으로 산업공간 가치를 재창조 할 계획이다. 부평산업단지는 청년융합센터 등 엔지니어링 구축을 통해 문화와 비즈니스가 함께하는 초일류 산업단지로 변화시킨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천의 산업단지가 물리적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 청년, 우리 시민 모두와 기업이 공존할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가 개최된 강운공업(주)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해 산업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발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선도기업으로 '2022년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문화경영' 부문에 선정된 기업이다.

김중남/기자

### 삼성전자, 美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영웅' 헌정 영상 공개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4.20일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4.20(木)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한국전쟁 참전 10대 영웅'들의 사진과 이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구성 되었으며, 4.20(木)일부터 2주간 상영될 예정이다.

10대 영웅에 선정된 인물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맥아더 장군 ▲부자가 함께 참전해 전장에서 아들을 잃은 밴플리트 장군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美 최고 전쟁영웅 16인'에 선정된 김영욱 대령 등이다.

\*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밴플리트 장군 & 밴플리트 주니어 대위 ▲월리엄 얼 쇼 군목 & 월리엄 해밀턴 쇼 대위 ▲딘 헤스 대령 ▲랄프 퍼지 중위 ▲김영욱 대령 ▲백선엽 장군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 ▲김동석 대령 ▲박정모 대령

한편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삼성을 만들었다는 인식에, 삼성은 1990년대 초부터 참전 용사와 후손 가족들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美 재향군인회가 수여하는 <패트리엇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삼성은 2015년 미국 하원에서 참전용사재단 후원을 열어 참전기념비 조성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리며, 나아가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한 삼성의 꾸준한 노력은 한미(韓美)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다지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엔 미국 외에도 영국, 에티오피아 등에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건립과 참전용사재단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콜롬비아 ▲터키 ▲태국 등 국가에서도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 '2023 남산골 한옥콘서트 '고요(古謠)' 개최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은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에서 2023 남산골 한옥콘서트 '고요(古謠) Vol.1'을 개최한다. 작년 '춘월가(春越家)'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던 한옥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됐다. 작년 5월 개최 후 약 1년여 만에 다시 열리는 한옥콘서트는 올해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총 8회 진행된다.

프로그램 제목인 '고요(古謠)'는 '옛날 가요'(전통민요·동요·유행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와 조용(평화)하고 잠잠한 상태를 나타내는 '고요하다'의 중의적 표현으로, 고즈넉한 전통한옥에서 옛 노래를 감상하면서 바쁜 일상 속 시민에게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콘서트 분위기를 담았다.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공연 '고요(古謠) Vol.1'은 전통 성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판소리와 경기민요 소리꾼이 출연해 심도 있는 우리의 소리를 들려준다.

관객들은 무대 앞에 모여 앉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전통가옥의 저녁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포크,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작년 공연과 달리 올해는 별도의 음향 장비 없이 명인·명창들이 출연해 판소리, 민요, 병창(악기와 창을 함께 연주하는 형태), 시나위(한국의 전통음악에 속하는 기악독주곡의 하나) 등 전통음악의 맛을 보다 가까이서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5월 18일 첫 공연에는 현재 밴드 이 날치의 멤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소리꾼 안이호가 출연한다.

안이호는 음악극 '적로', 소리극 '오시에 오시게', 판드라마 '야드', 뮤지컬 '적벽' 등의 극작업은 물론, 안은미컴퍼니와의 현대무용 및 '도리화가', '전우치' 등의 영화음악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이다.

한편, 판소리 '수궁가', '적벽가' 완창과 같은 전통 작업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남산골 한옥 콘서트에서는 심도 있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

다. 5월 마지막 무대인 5월 25일 무대에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인 소리꾼 김윤희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김윤희는 202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통소리를 재로로 창작 작업을 선보이는 '우리소리 바라지'의 보컬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강산제 심창가를 완창했고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재즈, 뮤지컬, 레게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뛰어난 실력으로 관객들에게 우리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6월 첫 무대인 6월 1일에는 경기민요 소리꾼 강효주가 전통적인 경기소리로 관객들의 감성을 적실 예정이

다. 강효주는 국립국악단 민속악단의 성악 수석단원이다. MBC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문 장원(2006), KBS 국악대상 민요부문(2007), 제17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대상(대통령상,

2011)을 수상한 명실공히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소리꾼이다. 현재는 활발한 공연 활동과 더불어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겸임교수 및 중앙대, 추계예술대 출강으로 후학 양성에도 매진 중이다.

상반기 마지막 공연인 6월 8일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인 성슬기가 출연한다.

성슬기는 전통을 재로로 하되, 형식이나 장르에 구애받지 않으며 경기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소리꾼으로서 다양한 소리를 선보이기 위해 서도민요, 정가를 학습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소리의 섬세한 표현과 청아한 음색, 성슬기만의 독보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정서가 담긴 경기소리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한편, 이번 공연은 한옥의 정취와 고요함을 자아내기 위해 민씨 가옥 대청마루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반아치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간 디자인에는 작년 '한옥담뿔 : 한옥, 꽃을 담다.'에 참여했던 보

타닉 아티스트 김슬기 작가가 참여한 다. 관객들이 공연에 더욱 몰입해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장치를 마련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공연이 될 것이다.

김홍진 서울시 문화재관리과장은 "남산골한옥마을의 한옥콘서트는 매년 열풍을 일으키는 남산골한옥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이다"라며 "올해도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공연을 마련했으나, 도심 속 한옥에서 한옥콘서트와 함께 몸과 마음이 모두 쉬어가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 남산골 한옥콘서트 '고요(古謠) Vol.1'은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회차별 잔여 티켓이 있는 경우 공연 당일 현장 매표 후 관람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전석 2만 원이며, 4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티켓 예매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산골한옥마을 축제공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수/기자



주최 | 영주시 | 주관 | 영적문화관광재단 | 후원 |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경상북도 (Gyeongangbuk-do)

## 소통과 협치를 구정핵심 가치로~관악구, '온라인관악청(聽)'으로 24시간 주민과 만나다

### 부서검토 및 답변기준 완화, 정책참여 이벤트 실시 등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

관악구가 '소통과 협치'를 구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창구로 주민과 만나고 있다.

전국 최초 카페형 구청장실인 '관악청(聽)'은 주민 누구나 구청장을 편히 만날 수 있는 열린 구청장실이자 이웃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는 주민 소통공간이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이동관악청',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등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주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365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인 '온라인관악청(聽)'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구는 여러 개로 분산·운영하던 주민참여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악청(聽) ▲정책 참여 ▲주민참여예산 ▲협치관악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의의 6개 메뉴로 구성해 주민참여 원스톱 통합 포털을 구축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부서 검토 기준을 공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구청장 직접 답변 기준을 댓글 300명 이상에서 100명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2021년부터는 매월 가장 많은 정책 제안 또는 댓글 참여 주민에게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2022년 월평균 제안건수는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으며, 온라인관악청 방문자 수도 매년 증가해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 30만 명을 돌파했다.

'관악구가 묻습니다' 메뉴에는 주민에게 묻고자 하는 의제를 게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책참여'를 통해 약 350건의 제안을 접수해 불채택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미술교 진입로 안전을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 보행자 편측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활용한 보행로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

림선 관악산역(서울대) 교차로 신호 등 위치 변경 제안에 대해 도립천 복원공사 완료 후 재설치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반영한 점 등이 주목받아 올해 초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오는 5월 'ESG 아이디어 공모전' 기간에 접수되는 모든 제안은 공감 수 관계없이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 후 채택된 제안 중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소통과 협치'인 만큼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여 살기 좋은 관악구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은평구,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추진

### 지난 18일 은평로21길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발대식 개최

서울 은평구는 지난 18일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은평로21길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녹번동 '은평로21길' 인근 주민, 상가 등 주민실천단과 관계기관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개요 및 경과보고, 탄소중립 실천선서, 녹번초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 물품 전달식, 생활실천 교육 및 다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은 '2050 탄소중립 은평' 실현을 위해 올해 은평구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녹번동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은평초등학교까지 이어진 '은평로21길' 노후환경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태양광 가로등,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은평로21길 탄소중립 주민실천단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 상가 제로 웨이스트 실천,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후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은평구도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캠페인' 실시,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구민 환경교육' 확대 등 다양한 탄소중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동네 골목길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저탄소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은평구 전체가 탄소중립 실천도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공동조사 부끄러운 민낯 드러내



- 정의당 독선에 의한 AWP영양풍력 공동조사에 영양군민 분노 폭발해
-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인 공동조사단, 시작부터 끝까지 불공정으로 치달아
- 5월초, 최종 심의의결기관 구성원 13명중 이은주 국회의원측 6명 구성돼
- ※의결기구에 들어가기 전, 사업자측 6대1의 악조건하에 의결에 붙여지는 년센스 연출
- 최종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적인 행정소송으로 번져질 공산 불가피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공동조사단은 최초 계획대비 하루를 축소할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가 지난 20일 13시, 현지에서 종료됐다. 이에 취재진은 이번 공동조사는 의지에서 들어 온 가짜 영양주민대표의 엉터리 주장에 의해 비롯된 해프닝으로서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와 공동조사측과의 질의간 발생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 봤다.

▲먼저, 이번 공동조사를 치름에 있어 정의당측의 실책은 의지에서 영양으로 혼자 살려 들어와, 특별한 일도 없이 오로지 영양군이 추진하려는 각종사업인 댐건설 반대, 풍력 반대, 변전소 설치 반대 등 온갖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군 발전에 방해 공작을 벌여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S모씨의 거짓 주장 자료에 현혹돼, 환경부 감사시 이를 제기해 추진된 점.

▲다음으로 공동조사단 편성시 가짜 영양주민대표를 버젓이 공동조사단 18명에 포함시킨 점, 더욱이 이런 가짜 영양주민대표에게 동물전문가를 추천하는 추천권을 쥐고, 이를 편성한 정과 식물 전문가를 추천할 때도 이 가짜 전문가가 개입해 추천이 이뤄진 점.

▲또한 공동조사 결과를 의결하는 5월초에 있을 심의의결 구성요원에 비전문가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 2명과 가짜 영양주민대표 S모씨를 구성요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의결도 하기 전 벌써 13명 중 6명이 이은주 국회의원측 입맛에 맞는 구성요원으로 편성해 1명뿐인 사업자측

추천 전문가와 대비해 불 대 개입을 치르기도 전에 총 13포인트 중 7포인트를 선점하는 틈이 이기는 상황의 게임에서 정의당측이 6대 1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앞선 상태에서 출발, 한명의 반대만 있어도 부결되는 지극히 불공정한 의결-심의 구성요원을 편성한 점.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이번 공동조사의 조사단 편성, 공동조사 진행, 5월초에 있을 심의의결과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모든 것을 쥐락펴락한 것이 정의당측이었길래 영양지역풍력 설치 지역 찬성 주민들이 정의당 이 의원측에 대해 극도로 분노를 하고 있는 점.

▲추가적으로 지난 19일부터 조사단에 참여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의 B모 비서관의 모습은 국민의 대의기관의 갑질로 비춰지고도 남을 정도로 그는 첫날 영양찬성주민들의 대화요구에 차문을 잠그고 일체 고개도 내미지 않고 1시간 버티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고, P보좌관(책임권한 없는 연락병역)이 간신히 나와 대화에 응해, 주민과의 대화를 전달해 답을 받아오는 참으로 갑질의 전형에 영양주민들은 "국회의원의 위치가 이리도 높은가?"하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 사람들은 이곳 영양을 당장 물러가라"고 강력한 분노를 표출한 문제였다.

취재진은 영양주민이 본지에 다시한번 불공정한 심의의결과정의 구성원 편성에 대해 고지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지난 20일자 보도자료 3면 기사내용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 공동조사후, 심의의결기구 구성요원은 동식물전문가 6명, 검토기관 4명, 정의당 2명, 정의당 추천 가짜 영양대표 1명 등 1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숲세 대놓고 부결을 시키자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식물 전문가 중 산양 전문가는 4명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추천 1명, 가짜 영양주민대표 S모씨 추천 1명, 풍력사업자 추천 1명, 그리고 승인기관 1명으로 편성돼 있다. 이 구성원은 중립인 승인기관 1명을 제외할 시, 풍력반대위원은 2명이고 사업자 측은 1명

으로 「사업자측은 2대 1의 불리한 상황에서 의결과정에 임해야 하도록 편성됐다.」

▲식생 전문가는 2명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의원실-주민대표 추천 1명, 환경부 추천 1명이다. 이 구성원은 사업자측은 일체 고려하지 않은 편성으로 중립인 환경부 추천인을 제외할 시 「사업자측은 1대 0의 불리한 상황에서 의결과정에 임해야 하도록 편성됐다.」

▲참고로 이 식생전문가 편성에 대해 지난 20일 조사후 대화자리에서 P모 보좌관에게 "왜 식생전문가는 이렇게 사업자측을 배제하고 의원실측과 가짜 영양주민대표의 추천만으로 했느냐?"고 질의하자 "보도할 것이냐?"고 물어 "그렇다"고 답하니 갑자기 손사래를 치면서 취재진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졸렬한 모습을 보여 과연 민의의 정당인 국민 대변자라 자처하는 국회의원의 일개 보좌관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잘못 편성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면 이런 행동을 보일까? 씁스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가장 심각한 의혹은 사업자측이 제기한 비전문가 3명 포함이다. 즉, 조사를 제기했으면 명색이 공신력있는 환경부에 전격 일임해,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입맛에 맞는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의결기구에 관여하는 일련으로 완전 비전문가인 정의당 의원실 2명, 정의당이 지명한 가짜 영양주민대표 1명을 의결기관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측은 3대 0이란 최악상황에서 의결과정에 임하으로써 불공정의 중첩검체를 넣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당생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편파적인 구성원 편성으로 지금 영양군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정의당 이은주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한 항의농성을 벌일 태세이다.

이렇게 편성되면, 13명의 의결구성원 중, 검토기관 4명과 산양 및 식생전문가 중립인원 2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미 판정결과가 어느쪽이든 나왔을 확률이 높은 분은 7명이 된다.

**즉, 의결조사과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풍력반대위원은 6명, 사업자측은 1명임을 알 수 있다.**

이리되면 사업자측은 6대 1이란 최악의 상황에서 나머지 환경부와 검토기관 6명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며, 만약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부결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깔고 하는 오류투성이의 구성원 편성으로 도마위에 올려 놓은 생선처럼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 맘대로 도마질 하겠다는 것으로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이 돼야 할 공동조사가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을 뜻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공정해야 한다. 세상이 공정치 못하면 각종 비리들이 판치게 돼, 매우 오염된 사회로 전락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되며 그 국가는 막장을 탈 수 밖에 없는 법이다.

이렇진데, 어찌 최우선 덕목으로 공정이야 할 공동조사단이 시작부터 구성원 편성에서 불공정·불합리한 편성을 하였으니

과연 이를 두고 어느누가 이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

이날 주민 L모씨는 "삼척등자도 알만한 일을 상식이하의 태도로 밀어 붙이는 정의당은 도대체 무엇하자는 것인지 우리 영양군민을 얼마나 무시 하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정의당은 죽각 영양 땅을 떠나라"고 격분해 하며 이은주 의원을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공동조사 사흘째인 지난 19일 13시경, 이곳 조사지역을 찾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비서관인 B모씨는 영양지역 주민이 차에서 내려 함께 대화를 하자고 함에도 차문을 열어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주민대표, 언론인대표와 P모보좌관과의 대화에서 나온 "S모씨 조사위원 배제, 심의의결시 정의당,가짜 영양군민대표 구성요원 배제에 대해 약속해, 풍력찬성주민들이 조사지역으로 차를 들여보내자 마자 이를 부인하고 가짜 주민대표를 조사단에서 배제하기 위해 함께 들어간 주민대표에게 같이 공동조사 주민대표로 들어오라는 즉석떡볶이식 기대이하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조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정의당 입맛에 맞게 편성된 것인가를 보여줘, 이번 공동조사에 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동식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명예심에 자칫 먹칠을 하는 우를 범할까 심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번일로 인하여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은 결단코, 국민적인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곳 영양주민들은 "영양군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 사는 이은주 국회의원이 무엇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고 있는 군민들의 머리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느냐? 우리 영양주민들은 오로지 공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환경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은 결코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며 정의당은 "더는 이 문제에 감나라대추나라 하지말고 죽각 물러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처럼, 이번 공동조사에서는 구성원부터 의결기구에 이르기까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이 밀어 부치며 추진한 하나같이 편파적인 일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아울러,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정의로움을 주창하는 공당이 가짜 주민대표에 현혹돼, 공정의 가치를 상실한 채, 자신의 입에 맞는 조사관을 편성하는 등, 공동조사를 벌인 것은 자칫 막장드라마란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기에, 더는 영양주민의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풍력설치를 찬성하는 99.8%의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조사의결 구성원 편성과정의 암덩어리를 도려내, 오로지 순수한 전문가들에 의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연해서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또다른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소모적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법이다. 그런까닭에 더는 무개념 가짜 영양주민대표의 말에 현혹돼, 정당한 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체 측을 방해하거나 사업을 지체하게 하는 일은 즉각 중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영양군은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군수는 물론, 영양군민 모두가 온갖 힘을 쏟고 있다. 사람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 이리도 짜여진 불공정한 잣대로 사업자측의 일을 해방하려고 할 수 있는지...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측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돼, 이곳 영양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세수가 증대하며,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양군에 희망의 등불이 활짝 밝혀 지는 건설적인 장이 펼쳐질지 소망해 본다.

자신이 잘못 판단해 다른길을 갔을때 빨리 되돌아와서 가면 되는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였듯이 역지토 새로운 길을 뚫으려 하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수도 있음을 깨닫는 거시적인 마음으로 세상사를 본다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수 있다는 교훈이 필요할 때라 여겨진다.

윤근수기자

### 제7회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29일 개막



서구 비산2.3동 달성토성마을골목 축제 조직위원회는 제7회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를 4월 29일 달성토성둘레길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4월 29일(토) 11시부터 달성토성서문 앞 공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달성토성 풍물단의 길놀이, 서부초 관악부 공연을 시작으로 마을 어린이집과 태권도 아동들의 공연무대가 이어지며, 가요교실, 하모니카 교실 등 주민동아리 공연도 있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무대가 펼쳐지고 나면 오후 2시 반부터 주민노래사랑과 초청가수 공연도 열린다.

저녁 6시 30분부터 중앙무대와 서문앞에서 "달성토성 별을 밝히다"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날뫼복춤준비회가 행사에 참여하며 날뫼복춤을 선두로 체험부스에서 직접

만든 소원등불과 행사장에서 주민들이 함께 꾸민 조형물로 행렬을 만들어 마을과 달성토성을 돌고 행사장에 내려와 축제를 마무리 한다.

한편 신익심인당 마당에서는 딱지치기, 팽이돌리기 등 놀이마당이 펼쳐지고 주행사장과 달성토성 둘레길을 중심으로 아나바다, 클린핸즈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장터, 주민들이 직접 가꾼 골목정원을 둘러보는 골목투어도 운영한다.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조직위원장(김기석)은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을 담은 행사로 특히 저녁부터 열리는 "달성토성 별을 밝히다"는 달성토성의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살아온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재밌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니 많이 오셔서 정성껏 가꾼 골목정원속에서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한국도자재단, 공예 시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돕는다... '공예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5월 3일까지 '2023년 공예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자 총 20명 공개모집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5월 3일까지 '2023년 공예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예 상품 아이디어를 가진 공예가의 시제품 개발과 양산 등을 실질적으로 도와 국내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202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49명의 공예품 개발을 도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등록 공예가로 도자, 목공, 금속, 유리, 디지털 등 전 분야에 걸쳐 모집하며 지난해 대비 지원 규모를 100% 대폭 확대해 총 20명을 모집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상품성 ▲기술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공예품 개발 지원금 3백만 원과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센터 오퍼레이터의 기술 지원을 통해 높은 완성도의 시제품 개발을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업 종료 후 개발된 상품 중 우수 공예품 3점을 선정하여 초도물량 생산, 마케팅 등에 필요한 후

속 지원금 1천만 원과 함께 공예품 생산·상품 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등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이 지원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또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용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공예가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혁신적인 공예 상품 아이디어 실현을 도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선순환하는 공예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서울 시내 50곳에서 2,700회의 거리공연이 매일매일!...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 2023년 활동 시작

###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 4월 21일 서울식물원을 시작으로 올해 공연 시작

서울시가 대표 거리공연인 '구석구석라이브'의 2023년 공연단 모집을 마치고, 오는 4월 21일(금), 서울식물원에서 첫 공연을 펼친다. 서울식물원을 시작으로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서울의 명소 50곳에서 연중 2,700회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시민들에게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해왔다. 공연기회가 부족한 예술인들에게는 활동 무대를 제공하여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둔 사업이다.

올해 '구석구석라이브'는 서울시민 누구나 곳곳에서 편리하게 거리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권 14개소, 서북권 8개소, 동북권 10개소, 동남권 10개소, 서남권 8개소 등 총 50곳에서 공연을 펼친다.

올해는 도심권 한강공원 및 지천, 북서울꿈의숲,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의 명소 곳곳에서 통기타, 해금, 바이올린 등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서울 시내 다양한 축제, 행사와 연계한 공연을 마련한다.

▲ 서울페스티벌 2023(4월) ▲ 책읽는 서울광장(4월~11월) ▲ 광화문책마당(4월~11월) ▲ 차없는 잠수고 두벽두벽 축제(5월) ▲ 한강페스티벌(5월~12월) 등에 서울 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를 더하여 음악이 함께하는 더욱 신나는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축제 이외에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 지천 등의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을 진행하여 좋은 날씨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석 속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올 한해 활동할 거리공연단을 모집했다. 총 546팀의 공연단이 참여 신청을 했고, 각 팀이 제출한 영상을 3월 28일~3월 29일 양일간 심사위원이 영상 심사하여 총 150팀을 선발했다. 전통, 기악,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단이 선발됐다.

최종 선발된 150팀의 거리공연단에게는 공연 참여 기회와 소정의 공연 실비가 지급되며, 오는 8월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버스커피스티벌'에 참여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석구석라이브'의 일일 및 월간 공연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석구석라이브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지역 생활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거리공연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 가능하다.

올해는 시민들이 거리공연을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생활플랫폼서비스인 '당근마켓'을 통해 실시간 공연 안내를 진행한다. 거리를 걸다가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시민들은 '당근마켓'에 접속

하여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공연장소에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민들에게는 관람의 기쁨을, 예술인에게는 공연의 기쁨을 주는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를 따스한 봄날을 맞아 다시 선보이게 됐다"며 "올 한해도 많은 시민들이 서울 곳곳에서 음악을 함께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아산시 '자기야' 박주희·'미스터트롯' 최정훈 "성웅 이순신 축제 보러 오세요"

### 아산시 정책특보단, 천안종합터미널 인근서 홍보 캠페인 진행



박경규 아산시장과 트로트 가수 박주희와 최정훈이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홍보를 위해 모였다.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단은 21일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일대에서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은 천안 종합터미널 인근에 있어 충남도 내에서 평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관의 시민들의 축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박경규 시장과 시 정책특별보좌관단은 성웅 이순신 축제를 홍보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가 담긴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며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김기창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단 간사(복지 분야 특보)는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보좌관들도 특별한 홍보캠페인을 만들어 힘을 보태자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천안시는 아산시에 인접해 있는 충남권 최대 도시인 만큼 축제 흥행을 위해서는 천안에서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는 '자기야'를 부른 가수 박주희와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최정훈도 함께 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곡을 부르며

행인들에게 살갑게 다가가 축제 홍보 전단을 나눠주는 등 열정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박경규 시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홍보 캠페인을 기획하고, 함께해주신 아산시 특별보좌관단과, 성웅 이순신 축제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가수 박주희, 최정훈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어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오로지 '성웅 이순신 축제'만을 위한 명품 문화 콘텐츠가 가득하다"고 자신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요원이 됐다는 생각으로 축제 홍보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곡교천 등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규모의 군악의장 페스티벌인 '제1회 아트벨리 아산 군악의장 페스티벌', 미국 인기 예능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선에 진출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필생즉생 필생즉사' 공연, '스트리트 맨 파티' 출연팀인 원밀리언과 저스트절크의 '학익진 스트리트 댄스'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명품 공연들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김원호/기자

## 부산시 영도구, '제57회 동삼어촌계 풍어제' 개최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57회 동삼어촌계 풍어제가 4월 21일 동삼동 하리항 공영주

차장에서 영도구청장, 영도구의회 의장,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어촌계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동삼어촌계 풍어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양석)가 주최하고 하리 당산제관 박헌철님이 주관하는 이번 제57회 풍어제는 오전 7시 당산참례를 시작으로 풍물공연과 별신굿 행사를 통해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을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우리구의 전통문화인 풍어제가 지속되길 바라고 올해도 어민들의 무사안전과 만년만만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삼어촌계 풍어제는 마을의 평안과 만년을 기원하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중에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송광삼/기자

## 화순 고인돌 축제와 함께하는 '남도전국가요제'

화순군이 전남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 오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가왕선발대회 '남도전국가요제'를 화순 고인돌 축제 중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도전국가요제'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열리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2023화순고인돌축제' 기간인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자는 다수의 인기 가수들과 경연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도·강원도·수도권·충청권·영남권 등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신청해 풍성한 공연이 기대된다.

'남도전국가요제'는 화순 고인돌 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되며, 4월 28일 예선이 치러지고 29일 본선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뮤지션들 경연의 장으로 마련된 '남도전국가요제'는 '미스터트롯'보다 앞서서 기성가수와 아마추어의 대결방식으로 독특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올해로 3회째 접어들면서 최성상의 가요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8일 예선에 참가할 뮤지션 중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성가수들이 포함돼 그야말로 기성가수와 아마추어 가수의 본격적인 대결도 기대된다.

본선 축하무대에는 진시몬, 김다나, 손정윤, 양학태, 센컨도, 킹스밴드, 멜리스가 무대를 빛내고, 예선 축하무대에는 고운미, 김동규, 김미연, 박치영, 불태산, 심재필, 유연주, 홍수필 등 지역 뮤지션들이 독특한 창법으로 관객과 참가자들에게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요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며, 대상 시상금도 500만 원으로 높여 참가자들의 많은 참여와 대중문화예술인 발굴이 기대된다.

남도전국가요제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남문화예술총연합회로 연락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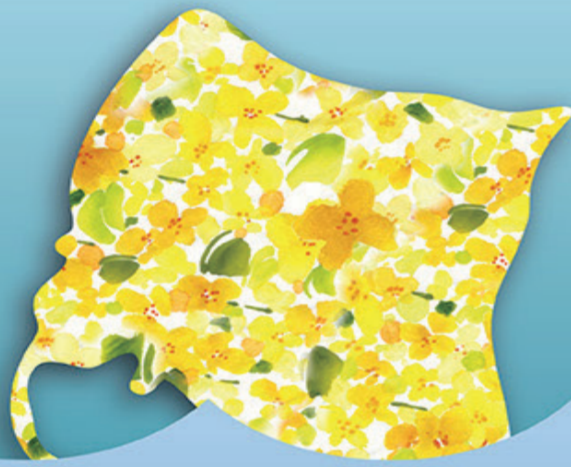
윤경호/기자





# 제19회

# 영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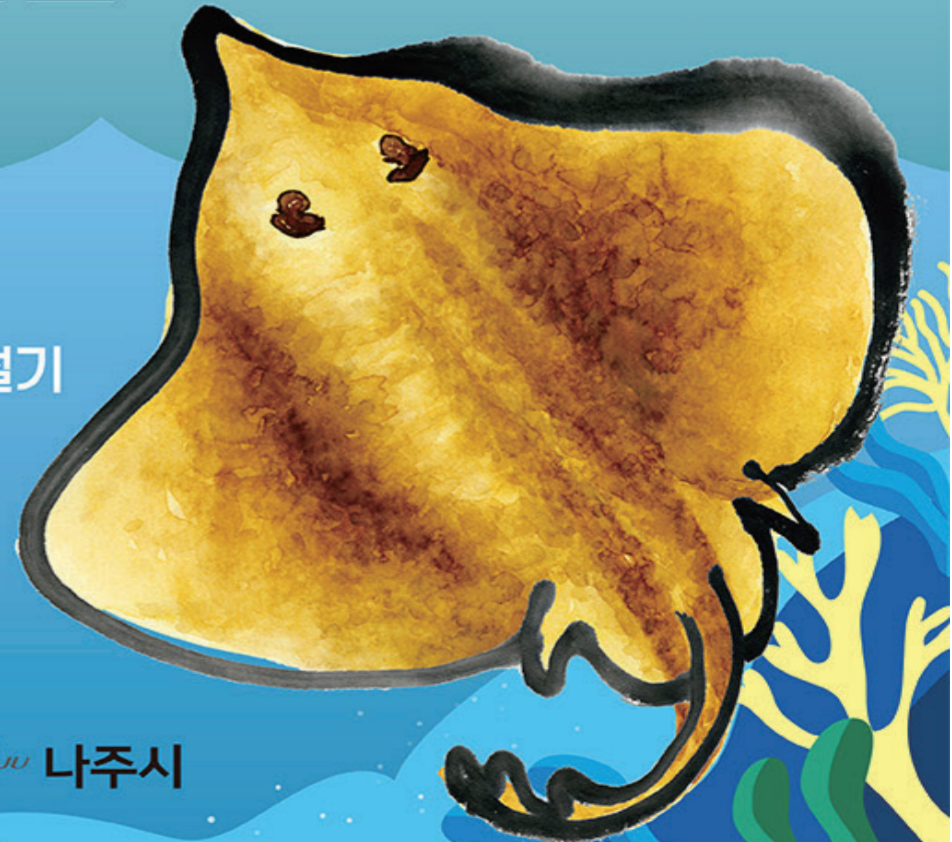
# 홍어 축제



**5. 5.[금] ~ 5. 7.[일]**  
 영산포 홍어거리 일원

**주요 프로그램**

홍어 요리교실, 홍어 맛보기, 홍어 예쁘게 썰기  
 맛있는 영산포 숙성 홍어경매  
 나주 시민 노래자랑, 홍어 디스코파티



주최·주관 영산포홍어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나주시